

LawSCHOOL 차오

미래의 희망 로스쿨

2017. JUL + AUG



07/08



XNU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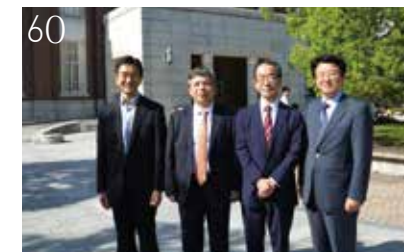
“우리 인간은 꿈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거든”

—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LawSCHOOL 창

미래의 희망 로스쿨

2017
07 + 08



발행일 2017년 7월
등록번호 2289-0262
발행인 이형규 이사장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주임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자이너 편집회사 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삼화인쇄(주)

표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서는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showe@leet.or.kr

- 04 로스쿨 탐방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동근 원장
- 08 파워인터뷰
신세계푸드 김은비 변호사
- 12 언론 속 로스쿨
(1) 이제는 로스쿨 시대
(2) 로스쿨의 현안과 개선 과제
- 18 SPECIAL REPORT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서
(2)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서
- 24 로스쿨 오피니언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복 교수
- 26 행복로스쿨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김선영 학생
- 28 특별기고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센터장 황인규 변호사
- 32 로스쿨 핫이슈
- 34 로스쿨 특파원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송범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엄유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여인영
- 44 로스쿨 생활백서
- 48 건강 멘토링
- 50 그림 읽어주는 변호사 / 책 읽어주는 변호사
- 58 문화가 산책
- 60 협의회 소식 / BOOK
- 62 OUT CAMPUS / QUIZ

전북대학교는 올해로 개교 70주년을 맞이했으며, 법학교육 역시 오랜 전통으로 높은 위상을 떨치고 있다. '성장'의 시대를 넘어 '성숙'의 대학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변화를 꾀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동근 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editor 박소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동근 원장

“전문성을 갖추고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글로벌 법조인, 전북대학교 법전원에서 양성합니다!”

Q. 전북대학교 법전원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무엇인가?

A. 전북대 법전원은 입학정원이 80명인 지역거점국립대학교 법전원이다. 전북대 법전원은 “지역 및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수준의 법학전문대학원 육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전문성을 갖추고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글로벌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대 법전원의 장점은 뜨거운 가슴과 전문성을 갖춘 훌륭한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학생들과 함께 뛰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대 법전원 교수님들은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들의 학업·진로·취업 등 법전원 생활 전반에 대해 포괄적이고 상시적인

약 력

- 전 공 _ 상사법
- 학 력 _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경 력 _ 前 전북대학교 기획부처장
現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
現 한국상사법학회 상임이사

지도·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법조인으로서의 인격적 가치관과 직업적 소양 및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학생들을 개인지도하고 있다. 학생들은 정규수업 외에 학술동아리 또는 동호회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전북대 법전원은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동북아법 특성화 로스쿨로서 동북아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는 점이 큰 자랑거리다.

Q. 전북대학교 법전원은 ‘3각(角)의 전일적(全一的) 법조인상’을 지향한다.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A. 전북대 법전원의 교육목표는 “전문성을 갖추고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글로벌 법조인 양성”이다. 3각(角)은 전문성, 봉사성, 글로벌리터를 의미한다. 전북대 법전원이 ‘3각(角)의 전일적 법조인상’을 지향한다는 뜻은 튼튼한 법학적 기초 위에 법 이론과 법 실무능력의 결합을 통하여 고도의 법적 문제 해결 능력을 습득한 법조인(전문성), 풍부한 인간성과 인문적인 교양을 함양하고 민주적 가치 보전과 인권 보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법조인(봉사성), 동북아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지식의 기반 위에 동북아 법령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창출하는 법조인(글로벌리티) 등 3각을 모두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Q. 국내 법전원 중 유일하게 ‘동북아법’을 특성화 과목으로 선정해서 운영 중이다. 동북아법을 선택한 까닭은 무엇인가?

A.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국·일본·몽골 및 러시아와 함께 동북아시아에 속해 있다. 최근 세계 경제의 중심축과 권력축이 서서히 미국과 유럽 중심에서 동북아시아 중심으로 옮겨 오고



있다. 이들 국가에 대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이해와 더불어 각국의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북대학교는 10여 년 전부터 동북아 중심대학임을 표방한 이래 당사국 대학들과의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동북아 관련 학문적 역량을 축적하고 있었으며, 2006년에는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해 오고 있었다. 법전원이 설립될 당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법조인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고, 최근의 투자 및 통상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그 수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전북대 법전원은 글로벌 리얼마인드를 갖춘 동북아법 전문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동북아법을 특성화 과목으로 선정하여 동북아시아 각국의 법제도에 대한 입문과정과 심화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Q. 전북대학교 법전원의 장학 혜택은?

A. 전북대 법전원은 학생들의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한 장학제도를 통하여 경제적인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장학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대 법전원의 2016학년도 장학금 지급률은 전액 등록금 대비 30% 이상이었고, 전체 학생 중 55%가 각종 장학금을 받았다. 전북대 법전원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중 70% 이상은 순수하게 경제적인 사유만을 고려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Q.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한 전북대학교 법전원만의 노력에는 무엇이 있나?

A. 전북대 법전원은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해 개인지도시스템인 ‘전담지도교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교수는 자신의 지도학생으로 배정된 학생을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업·진로·취업 등 법전원 생활전반에 대해 포괄적이고 상시적으로 지도 및 상담을 한다. 매학기마다 최소 3회 이상 지도학생들을 만나 지도 및 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전담지도교제의 장점은 첫째, 멘토링 시스템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학년별로 일정수를 균등배정하여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2,3학년생이 1,2학년생의 멘토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 교수와 학생간, 학생 상호간에 인격적인 교류가 가능해졌다. 둘째, 인트라넷을 통한 학생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학생개인지도를 위한 인트라넷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도교수가 학생의 상담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고, 학생 상담 내용이 인트라넷 시스템에 축적되어 학생의 적성 및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도가 가능하다. 셋째, 학생지도의 현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수와 재학생 외에 졸업생까지 연계한 학생지도를 제도화하여 졸업생 변호사들의 현장실무경험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어서 학생지도의 효율성과 현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Q.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짐에 따라 학생들이 시험에만 집중해, 종래 사법시험의 폐단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해결책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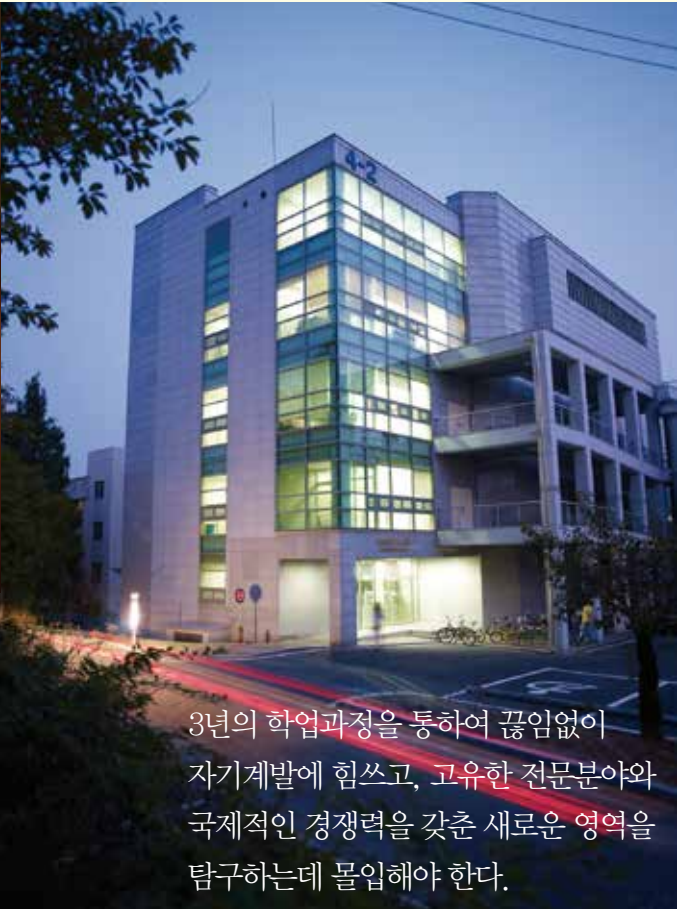
A. 법전원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현재는 정원제 합격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매년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는 소수만 증가한 데 반해 응시인원은 대폭 증가하고 있다. 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87.1%였지만, 6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1.4%로 계속 하락하고 있



고, 최종적으로 48% 내외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수렴될 것이라 예측한다. 합격률이 계속 낮아지고 변호사시험의 난이도와 커트라인 점수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 법전원 학생들은 필연적으로 변호사시험 과목 위주로 공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을 신속하게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하고, 법전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변호사시험은 법전원 교육과정에서 배운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과목 외에 선택과목과 특성화과목을 정상적으로 수강하게 될 것이다.

Q. 지방 법전원으로서 알게 모르게 받는 차별도 존재하나?

A.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발달하다 보니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발전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이면 좋은 대학, 즉 서울에 있으면 모든 대학이 서울대학이고, 비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이면 조금 떨어진 대학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 법전원의 경우도 다르지 않아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면 좋은 법전원, 지방에 있으면 그렇지 못한 법전원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다. 특히 변호사 취업시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에 위치한 법전원들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시켰으나, 서울에 위치한 대형 로펌과 대기업의 법무팀에 취업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 지방 법전원 출신 변호사들은 취업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본다. 한편 변호사시험 장소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 법전원 인가시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모든 지역에 골고루 인가해 주었지만, 시험장소의 경우 서울과 대전으로 국한시키고 있다. 시험장소가 위치한 지역의 법전원 학생과 그렇지 못한 법전원 학생의 시험성적은 평균 2~3점 차이가 난다는 것이 정설처럼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시험이 법전원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시험이 되기 위해서는 법전원이 설립된 모든 지역에서 변호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Q. 배출되는 법조인의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법전원을 통해 매년 배출되는 법조인의 수는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는가?

A. 일각에서는 법조인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조계 기득권층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의혹을 면할 수 없고,

또 법전원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 법전원 체제에서 배출된 법조인들은 송무중심에서 벗어나 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고 있다. 신규 법조인들이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함으로써 법률시장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송무 수급만을 토대로 법조인 수급문제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조인 수를 제한하기 보다는 변호사 수급이 어려울 때 확장되었던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 및 변리사 등 유사직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Q. 지난 3월 지역거점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장에 취임했다. 지역거점국립대학교 법전원장협의회는 어떤 단체이며, 현재까지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졌나?

A. 지역거점국립대학교 법전원장협의회는 8개 지역거점국립대학교 법전원장들이 모인 협의체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대표하여 법전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립대 법전원이나 사립대 법전원이나의 여부에 따라 서로 입장이 다르다. 지역거점국립대학교 법전원은 지방에 위치한 국립대 법전원이라는 점에서 서로 입장이 동일하여 지역거점국립대학교 법전원의 권익 향상과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역거점국립대학교 법전원장협의회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저하에 따른 학생들의 실력향상 방안 모색,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 추진,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법 과목 개설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거점국립대학교 법전원장협의회는 전체 법전원의 발전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률 전문가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Q. 끝으로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 여러분들은 지리적으로나 사고에서나 고착되지 않은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글로벌화, 정보화로 대변되는 여러분의 21세기는 늘 새로움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도하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우리가 만들어 내고 발전시킨 유·무형의 자산을 법률적으로 보호할 국제 경쟁력이 있는 전문법조인으로 성장해 나갔으면 한다. 3년의 학업과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힘쓰고, 고유한 전문분야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는데 몰입해야 한다. 학생 여러분들은 법전원에서 교수님들과 선배, 그리고 동료들과도 소중한 인연을 맺었으면 한다. 여러분은 대부분 서로 다른 대학을 졸업하였고, 고향이 다르고,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분야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이상을 높게 하고, 우정을 깊게 나누고, 사랑을 넓게 펼치는 배움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로스쿨 도입의 가장 큰 성과를 꼽자면 송무 중심의 변호사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직역에서 활동하는 법조인의 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변호사 2만 명 시대. 로스쿨을 통해 배출된 변호사들은 더 이상 로펌에만 있지 않고 다양한 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세계푸드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은비 변호사를 만나, 사내변호사로서의 삶에 대해 들어봤다. editor. 박소희

신세계푸드 김은비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직업인’이자 ‘개인’으로서의 삶의 조화를 추구한다면 사내변호사로 일하는 것이 적성에 잘 맞을 것



Q. 학부 시절의 전공은 무엇이었나요?

A. 어린 시절부터 언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고등학교 때 존경하던 영어선생님께서 본인의 모교인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수시전형을 통해 지원해 볼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지원 당시 인도네시아가 자원이 풍부한 인구대국으로서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말레이-인도네시아어를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고, 재학 중에는 교환학생으로 말레이시아 과학대학(Univ. of Science, Malaysia)에서 1년간 수학하기도 하는 등 외부활동보다는 전공공부에 충실하여 학과수석으로 졸업하였습니다(웃음).

Q. 로스쿨에 입학한 계기가 궁금해요.

A. 학부 시절 취업준비를 시작하면서 적성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언어를 전공했으니까, 앞으로 해외영업을 해야겠다!’라고만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삼성그룹 계열사에 운 좋게 바로 합격하여 꿈꿔왔던 해외영업팀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업무를

신세계푸드는 신세계그룹 계열사로

식품 제조, 유통, 위탁급식,

식음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위탁급식 사업을

시작하였고,

수제맥주로 유명한 데블스도어,

한식뷔페 올반이 저희 외식브랜드이며,

이마트의 피코크, 스타벅스의

베이커리류 제조생산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매일 수행하면서 뒤늦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며,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만의 독자적인 전문분야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던 중 새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에 관심이 생겨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Q. 비법학 전공자로서의 로스쿨 생활은 어땠나요?

A. 로스쿨 입학 전 법서나 법전 한 번 펴본 적 없는 “생비법”으로 들어가 첫 1학기에는 법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는 상태로 매우 고생하였습니다(웃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래 앉아서 버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3년간 말 그대로 열심히 버티며 조금씩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만의 장점을 특화하기 위하여 국제지역법 과목 역시 꾸준히 수강하였습니다. 외대의 경우 중동부터 러시아, 중국, 브라질,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을 아우르는 강의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셨던 교수님들께서 직접 강의를 진행하며, 특히 인도네시아와 이집트, 중국, 미국, 브라질 등의 경우 현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더 생생한 현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Q. 졸업 후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진로 중에서 ‘사내 변호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요?

A. 과거에 회사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송무변호사의 ‘독립성’보다는 사내변호사의 ‘안정성’이 제게 더 맞는다는 것을 다소 빨리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후 바로 일반 기업체로 이직하여 본격적으로 사내변호사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신세계푸드는 어떤 회사인가요?

A. 신세계푸드는 신세계그룹 계열사로 식품 제조, 유통, 위탁급식, 식음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위탁급식 사업을 시작하였고, 수제맥주로 유명한 데블스도어, 한식뷔페 올반이 저희 외식브랜드이며, 이마트의 피코크, 스타벅스의 베이커리류 제조생산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연매출 1조원을 달성하였고, 2023년까지



기업 활동 중 직면하는
리걸 이슈 중에는 명확한
기준이나 선례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해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다 보니
회사 내 유일한 법률 전문가로서
홀로 부담하게 되는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타 계열사나, 외부 법무법인
변호사님들의 조력을 받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회사 내 법무담당자는 저이기
때문입니다.

연매출규모 5조원의 글로벌 종합식품회사가 되기 위해 임직원 모두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현재 변호사님의 담당 업무는 무엇인가요?

A. 현재 제가 담당하는 업무를 크게 나누면, 각종 계약서 작성 및 검토, 현업부서의 법률 질의 검토, 소송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법무 담당자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최대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법적 분쟁은 신속히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군이 매우 다양한 데다가 지난 몇 년간 외형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다 보니 내부적으로 법률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태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회사에게 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사내변호사'의 가장 매력적인 요소는 무엇인가요?

A.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에세이집 제목처럼, '직업으로서의 변호사'라는 관점에서 사내변호사로 일하는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진학 전 회사를 다닐 때에는 일을 열심히 할수록 스스로가 소진된다는 느낌을 종종 받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된 후에는 일을 하면서 체득하는 경험과 지식이 모두 제가 발전하는 자양분이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 업무에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고, 업무 성취도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에서 일할 때보다 재충전할 수 있는 물리적·정신적 여유와 자기계발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직업인'이자 '개인'으로서의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사내변호사로서 일하는 것이 적성에 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Q. 반면에 고충도 있을 것 같아요.

A. 기업 활동 중 직면하는 리걸 이슈 중에는 명확한 기준이나 선례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해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다 보니 회사 내 유일한 법률 전문가로서 홀로 부담하게 되는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타 계열사나, 외부 법무법인 변호사님들의 조력을 받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회사 내 법무담당자는 저이기 때문입니다.

Q. 사내변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개인적으로 사내변호사로서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조직 융화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의 특성상 현업에서 하려는 일에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할 때가 많은데, 평소 유대관계를 잘 맺어 놓지 않으면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내변호사는 법 외에도 회사의 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회계, 재무 때로는 기획까지 폭넓은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갖추어야 하므로 generalist로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Q. 로스쿨 3년을 흔들리지 않고 보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후배들에게 조언해주세요.

A. 로스쿨에서의 3년은 힘들었던 만큼 배운 것도 많았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한 불신과 앞날에 대한 불안감으로 괴로워하느라 좀 더 치열하게 공부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

니다.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말고, 스스로를 믿고 하루하루 그날의 몫을 최선을 다해 나가면 어느 순간 3년은 지나가 있고, 노력한 성과가 돌아오리라 생각합니다.

Q. 끝으로 향후 계획을 알려주세요.

A. 커리어적으로 안정을 피하면서 다시금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번 중국과의 사드 사태 이후 많은 기업에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18억 명에 이르는 무슬림 인구를 대상으로 한 할랄 시장 역시 점차 커지고 있어 학부 전공인 말레이-인도네시아 지역학 쪽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떨까 고민하고 있습니다(웃음). [창](#)

김은비 변호사의 꿀TIP

Q. 사내변호사 지원 시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1) 사내변호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의 경우 공고당 채용인원이 1~2명 정도로 적습니다. 그런데 지원자는 몰리다 보니 보통 지원기간이 마감되기 전 입사지원서 제출 순으로 먼저 면접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어 평소 관심 있는 기업의 공고가 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평소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지원하고 싶은 기업의 채용공고가 뜨는 경우 빠르면 당일, 늦어도 2~3일 내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일반 기업의 채용절차는 보통 서류전형-면접전형(1차: 실무진 면접, 2차: 임원면접)-건강검진의 순서로 진행되고, 기업에 따라 인적성 검사나 별도의 영어 테스트를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영문 계약서를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평소 기본적인 영어실력을 갖추고, 토익이나 토플 등의 점수는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업의 감사보고서나 관련 기사 등을 찾아보며 사업군이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이슈를 숙지하면 면접에서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면접 시 예상되는 질문을 생각한 뒤 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5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법률방송은 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삶을 보여주는 특집 프로그램 <이제는 로스쿨 시대>를 공동으로 기획해서 방송했다. 총 60분 분량으로 제작된 이 프로그램은 로스쿨 학생들의 희노애락을 진솔하게 조명했다는 평을 받았다.

로스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제는 로스쿨 시대

복서



인하대학교 로스쿨 7기 _ 이형석

“운동을 그만두고 대학을 갔을 때부터 제가 체육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싶었습니다. 대부분 간접적인 역할에 그치는 것 같았는데, 변호사가 되면 체육계의 문제와 병폐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10년 뒤에는 프로복서 겸 변호사로서 복싱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의 선수들과 교감하고, 선수들의 생활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스포츠계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모델



중앙대학교 로스쿨 9기 _ 강병조

“법학과를 전공했지만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는 주변의 권유로 연기를 1년 정도 배우고 광고모델을 2년 정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연기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고, 무분별한 저작권 내지 초상권, 성명권 등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정말 많은데도 구제 절차가 많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졸업 후에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가 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질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는 ‘소통담당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만학도



제주대학교 로스쿨 7기 _ 김한메

“우리나라 나이로 45살에 로스쿨에 입학했고, 그 당시 기준으로 학교 역사상 최고령 입학자였습니다. 현재 아내가 아이 셋을 양육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실질적인 가장이어서, 늘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죄인된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2의 조국으로 생각하는 이민자나 난민,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한 다문화 전문 로펌을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유능한 이민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유학생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8기 _ 김현진

“어린 시절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한 끝에 유명 로스쿨에 합격했지만, 제가 미국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어서 사건을 수임하는데 제약을 받을 거라는 조언을 많이 들었어요. 궁극적으로 한국에 사는 게 목표라면 한국에서 활동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한국 로스쿨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10년 뒤에는 국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가 되었으면 해요. 제가 가진 외국에서의 경험이나 로스쿨에서 배운 경험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제중재에 참여하면서 활약하고 싶습니다.”

아기아빠



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 8기 _ 김규현

“게임 회사를 잘 이끌어다가다가 정책 하나에 사업이 없어지니까 억울함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 법과 정책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법을 제대로 공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로스쿨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있는 상황이라 생활비 부담이 있는데, 현재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졸업 후에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권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Mini interview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



Q. 고액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스쿨의 노력은?

A. 많은 사람들이 로스쿨은 등록금이 비싸서 가난한 사람은 로스쿨에서 공부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25개 로스쿨 전체 학생 6,000명 중에서 953명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6%나 되는 학생이 돈 한 푼 안 내고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득분위에 따라서 적게는 20%, 많게는

100%까지 로스쿨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의 15%를 인하했고, 국립대도 등록금을 5년간 동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도 공부만 잘하면 얼마든지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Q. 사법시험과는 다른 로스쿨만의 장점은?

A. 첫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법조 인력으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법조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법시험은 학교 교육의 파행을 가져왔으나 로스쿨 제도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셋째, 로스쿨은 사법시험의 약 3%밖에 되지 않는 낮은 합격률로 인해 아까운 인재가 고시 낭인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충남대학교 로스쿨 7기 _ 송유진

“송파구에서 있었던 세 모녀의 자살 사건은 법을 몰랐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불행한 사건인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서 그들을 돕는 데에 있어서 법조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로스쿨 입학에 결심하게 됐습니다. 로스쿨 입학 전 IT 벤처기업을 창업해 현재까지도 운영 중이며, 로스쿨에 입학해서는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스마트폰 법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법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IT업계에서 경험한 역량과 법조인으로서 앞으로 익혀가게 될 역량을 결합해서 그러한 문턱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IT기업 사장



After Lawschool

인천 서부경찰서 김별다비 경감/변호사 충북대학교 로스쿨 3기



Q. 로스쿨에 진학하게 된 계기는?

A. (미술 전공으로) 작가 생활과 큐레이터 생활을 하다 보니 미술품 관련된 범죄가 많이 있었고 부당한 갑질을 겪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알아보니 해외에는 미술품 범죄 관련 전문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 미술계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로스쿨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Q. 경찰이자 변호사인데, 장단점이 있다면?

A. 좋은 점은 만약 단순히 변호사였다면 어려우신 분들의 사건만 수입하는 것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경찰이기 때문에, 급여도 나오고 또 공무원으로서 어려우신 분들의 사건도 마음놓고 할 수 있어서 보람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경찰이다 보니 피의자 심문할 때 점점 얼굴이 굳어간다는 것이죠(웃음). 그래도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

A. 원래 미술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변호사를 하다가 경찰에 왔는데요. 가능하다면 이 장점들을 살려서 갑질에 시달리는 문화예술계의 힘든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법적조언을 해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세종 정성환 변호사 한양대학교 로스쿨 5기



Q. 로스쿨에 진학하게 된 계기는?

A. 법적인 분쟁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법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Q. 로스쿨만의 장점은 무엇인가?

A. 행정고시 생활을 접고 로스쿨에 진학해서 가장 좋았던 건 일단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동기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짜여져 있는 교육과정을 동기들과 함께 따라가다 보면 꽤 높은 확률로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안정감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A. 로스쿨 3년 동안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말라'는 문구를 책상에 붙여놓고 공부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내가 실력이 부족한가?'라는 생각도 들고 상대방과 서로 비교하면서 자신감을 많이 잃게 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나를 믿어줘야 더 성장할 수 있으니까 후배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짓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제는 로스쿨 시대〉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 (info.leet.or.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론 속 로스쿨

로스쿨의 현안과 개선 과제

이형규 이사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먼저 법률저널 창간 1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인터넷 매체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대규모 일간지의 경우에도 ‘중이신문’의 발행이 어려운데, 법조 직역에 관한 시사뉴스와 각종 고시정보의 전문지로서 곳곳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법률저널’에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법조 직역의 현안에 관하여 독자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최근에 법률저널에서 많이 다룬 기사 중의 하나가 로스쿨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에 설립된 전국 25개의 로스쿨들은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전형의 공정성, 고액의 등록금, 로스쿨 교육의 적정성,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합격인원 및 변호사의 취업문제 등이 자주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안 중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고액의 등록금 문제 등에 대하여는 상당한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변호사시험과 관련 선택과목 시험제도, 합격률 및 실무교육 강화 등에 대하여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은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2017학년도 입학전형부터 모든 로스쿨이 철저하게 평

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우선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및 외국어성적 등 정량평가의 비중을 강화하고, 평가요소별 실질반영률과 산방법을 공개하여 수험생이 지원한 로스쿨 입시에서 자신의 점수가 얼마인지 스스로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논란이 되었던 서류평가와 관련 입학서류에 부모와 친·인척 등의 신상 기재를 금지하고, 무(無)자료 면접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선발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로스쿨은 등록금이 비싸서, 돈 없는 사람은 다니기 어렵다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스쿨은 2016년 기준으로 사립대 등록금을 15% 인하하고, 국공립대의 등록금을 5년간 동결하였으며, 모든 대학이 등록금 총액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로스쿨에서는 특별전형을 통해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경제적 취약계층 및 장애인 학생들이 매년 130여명씩 입학하고, 이들을 포함하여 전체 로스쿨생 6000여명 중 약 900명이 전액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을 한 푼도 안 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로스쿨에 입학하면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는 장학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로스쿨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

다. 우선 변호사 시험과목 중 선택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 시험과목은 민사법, 형사법, 공법 및 선택법입니다. 선택법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7개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과목 간에는 난이도, 출제범위와 학습분량 및 응시자 수 등 현저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과목의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며, 사회적 수요에 따른 법률전문가의 양성과는 동떨어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과목 평균 응시자 현황을 보면, 국제거래법이 40.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환경법 23.8%, 노동법 17.5%, 경제법 9.9%, 국제법 3.3%, 지적재산권법 3.1%, 조세법 2.1% 순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의 법률가 수요와는 무관하게 어느 과목이 시험공부에 유리한지에 따라 결정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로스쿨 학생들이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분야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목을 시험 대신에 이수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으로서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배운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고, 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변호사 시험은 정원제 합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합격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 추이를 보면 1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87.15%였지만, 그 후 점점 감소하여 올해 시행된 6회 합격률은 51.44%로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로스쿨생들이 시험과목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 로스쿨 도입 취지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로스쿨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응시자 대비 60% 수준의 합격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부 변호

사들은 변호사업체가 포화상태이므로 로스쿨의 정원과 변호사합격자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률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이지, 취업을 보장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송무 위주였던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앞으로 다양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고액의 등록금 문제 등에
대하여는 상당한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변호사시험과
관련 선택과목 시험제도,
합격률 및 실무교육 강화
등에 대하여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법연수원 출신들보다 실무능력이 뒤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적인 차이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려면 4년 이상 법학을 공부하고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체계적인 실무연수교육을 받기 때문에 수준 높은 실무능력을 갖추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법연수원 운영비용은 연수원생의 급여를 포함하여 500억원 이상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왔습니다. 그러나 로스쿨생들은 3년의 로스쿨 교육과정 중에 스스로 ‘실습과정’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로스쿨 졸업생의 실무경험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스쿨생들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서 체계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실무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면 관계로 로스쿨의 모든 현안을 다루지 못하여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 로스쿨은 제도적 개선과 함께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충실한 법이론 및 실무교육을 통하여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법률저널 창간 1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기고문 출처: 법률저널 2017-05-20

지난 5월 31일(수) 송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조단체의 이익을 위해 로스쿨법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무조건적으로 변호사 수를 증원하여 로스쿨 정원, 합격인원, 평가를 대한변호사협회 위주로 통제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최근 대한변협은 세미나(17.6.28)를 통해 자신들만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알리고자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서

1 송기석 의원 대표발의 법전원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위원 구성(11명)] ○ 위원장 1명 ○ 법학교수 4명(교육부장관 추천) ○ 10년이상 경력 판사 1명(법원행정처장 추천) ○ 10년이상 경력 검사 1명(법무부 장관 추천) ○ 10년이상 경력 변호사 1명 ○ 10년 이상 근무 교육행정 공무원 1명 ○ 학식·덕망 있는 자 3명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등] ○ 결과 통지 ○ 결과 공표 ○ 결과에 대한 의견 진술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위원 구성(14명)] ○ 위원장 1명 ○ 법학교수 4명(교육부장관 추천) ○ 10년이상 경력 판사 1명(법원행정처장 추천) ○ 10년이상 경력 검사 1명(법무부 장관 추천) ○ 10년이상 경력 변호사 4명 ○ 10년 이상 근무 교육행정 공무원 1명 ○ 학식·덕망 있는 자 3명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등] ○ 좌동 ○ 좌동 ○ 좌동 ○ 시정명령, 인가취소 요청권

※ 평가위원회 위원 수를 변호사 1명에서 ⇒ 4명으로 확대

○ 변호사를 양성하는 특수한 기관이므로 변호사가 적극 참여한다는 취지임.

※ 발의 인원 10명 중 법조인 6명

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검토 의견

(1)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은 현재도 법조인(변호사 자격 소지)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총 11명 중 2016년 2월 11일부터 2018년 2월 10일 총 임기 중 평가위원 구성을 보면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위원 구성(11명)]	현 위원	개정안
○ 위원장 1명	○ 위원장: 대한변협 부협회장	○ 좌동
○ 법학교수 4명 (교육부장관 추천)	○ 법학교수 4명 - 법조인(변호사 자격) 출신 교수 2명 - 이론교수 2명	○ 좌동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위원 구성(11명)]	현 위원	개정안
○ 10년이상 경력 판사 1명 (법원행정처장 추천)	○ 판사(변호사 자격) 1명	○ 좌 동
○ 10년이상 경력 검사 1명 (법무부장관 추천)	○ 검사(변호사 자격) 1명	○ 좌 동
○ 10년이상 경력 변호사 1명	○ 변호사 1명	○ 변호사 4인
○ 10년 이상 근무 교육행정 공무원 1명	○ 교육부 국장 1명	
○ 학식·덕망있는 자 3명	○ 대학교수 1명(평가전문가) ○ 언론인 2명	○ 좌 동 ○ 좌 동
11명	11명 (법조 6명, 비법조 5명)	14명 (법조 9명, 비법조 5명)

- 현재도 위와 같이 법조인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평가위원회가 법전원을 평가하고 있는데, 변호사 위원을 3명 추가하면 로스쿨제도의 운영에 관한 공정한 평가보다 로스쿨 통제를 위한 평가기구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 또한 대한변협이 시정명령, 인가 취소, 요청권을 가지게 되면 이익단체인 변협의 권한 남용, 로스쿨 근간의 훼손이 우려됨.

(2) 변호사 위원 3인을 추가하려는 것은 법전원 제도와 운영의 발전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보다 정원 감축·인가취소 등 법전원의 통제 수단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 현재까지 평가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변호사 출신 위원 수가 적어서 평가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은 없었음.
- 법전원은 설치기준에 의거 법전원을 설치하면서 법전원별 소규모 정원(40명~150명)을 인가, 대한변협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법전원 수입은 감소, 지출은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음.
- 이러한 소규모 법전원의 운영은 법전원의 고비용 구조를 면할 수 없게 하여 매년 재정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로스쿨법 3조에 국가의 책무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 국가 지원이 아주 미흡한 실정이고 대한변협은 법전원에 대한 비판과 변호사 합격자 수의 감축만을 주장하고 있다.
- 소규모 정원으로 인하여 법전원의 재정적 적자가 매년 증가하고, 국가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등록금을 인하하고, 등록금 대비 장학금을 30% 이상 유지하도록 한 것은 학교 자율성과 현실을 도외시한 것임.

(3) 평가위원회는 로스쿨의 교육과정,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진로,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가 양성기관인 로스쿨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학식과 경험 등 법전원의 교육과정, 교육지원을 위한 자금운영 사항, 법전원 특성화 분야, 다양한 직역 개척 등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의 대원칙을 이해하고 공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4) 일본의 법과대학원 인증평가위원회의 구성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평가 인증위원회의 구성에 답이 있다.

- 일본 법과대학원 인증평가기관은 3곳으로 이 중 1곳을 선택하여 평가받을 수 있다.
- (독)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에서는 주로 국·공립 법과대학원이 평가받고, (공)대학기준협회에서는 사립 법과대학원이 평가받고 있으며, (공)일본변법무연구재단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법과대학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 (독)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는 로스쿨에 대한 넓은 지식을 갖춘 대학관계자 및 법조인 관계자, 사회·경제·문화·기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3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음.
- ※ 현 구성원 23명 중 교수 16명, 변호사 3명, 법무부 1명, 사법연수원 1명, 언론 등 2명으로 구성.
- ※ 출처: <http://www.niad.ac.jp/>
- 한국도 대한변협법전문평가위원회 또는 한국대학평가원 중 평가기관을 선택하여 평가를 받게 할 필요가 있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대학평가원을 독립기구로 설치함. 대학평가인증위원회의 구성은 평가위원장을 포함하여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 교육계 저명인사 5인 이내, 고등교육과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3인 이내, 산업계 또는 사회단체의 대표 5인 이내, 대학평가 전문가 3인 이내로 구성되며 대교협 회장이 위촉.
- 법전원의 자율성·선택권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개별 법전원의 대학환경과 교육특색에 맞는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인증평가기관을 선택하여 평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평가기관의 확대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5)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법률 개정안에 반대한다.

- 현재 로스쿨 평가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없이 변호사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을 반영한 법률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함. 위 법률 개정안은 법조인 출신 위원 수를 확대하여 평가위원회를 법전원의 정원 통제, 인가 취소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에 불과함.
- 일본의 사려나 대학 평가 전문기관의 평가위원 구성을 보더라도, 특정 이익단체가 무조건 평가 위원회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
- 과거 변호사 배출 수가 적을 때에는 변호사들이 송무 중심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변호사의 직무영역에 해당하는 유사직역인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의 활동영역이 급격히 팽창한 측면이 있었음. 그러나 이제는 변호사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었으므로 유사 직역을 정리하고 송무이외에 글로벌 기업, 공공기관,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 법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도와 수요의 변화에 걸맞는 로스쿨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특정 이익단체의 평가 위원수를 확대하는 것보다 로스쿨의 교육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
- 발의한 의원들께서는 법조단체의 이익을 위한 로스쿨 통제수단의 강화보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요청함.

(6) 법안 개정 이유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사실이 왜곡되어 있다.

- 개정안에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입학 과정의 불공정성, 실무교육의 부실화, 불투명한 학사관리 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면서 “2016년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4개 로스쿨 선발과정에서 부정행위와 불공정 입학 사례가 발견된 만큼 로스쿨 운영상 지적된 개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으나, 이것은 사실과 다름.
- 전국 25개 로스쿨은 지난 2016년에 입학전형의 공정성확보, 등록금 인하, 학사관리 강화 등 로스쿨의 개혁을 단행하였음. 우선 2017학년도 입학전형부터 모든 로스쿨이 철저하게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였음. 정량평가의 비중을 강화하고, 평가요소별 실질반영률과 환산방법을 공개하여 수험생이 지원한 로스쿨 입시에서 자신의 점수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하였음. 논란이 되었던 서류평가와 관련 입학서류에 부모와 친·인척 등의 신상 기재를 금지하고, 무(無)자료 면접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또한 2016년 기준으로 사립대 로스쿨은 등록금을 15% 인하하고, 국공립대 로스쿨은 등록금을 5년간 동결하였으며, 모든 대학이 등록금 총액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음.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서

1 송기석 의원 대표발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15명)] ○ 법무부 차관 (이하 법무부 장관 위촉) ○ 법학교수 5명 ○ 10년이상 경력 판사 2명(법원행정처장 추천) ○ 10년이상 경력 검사 2명 ○ 10년이상 경력 변호사 3명(변협회장 추천) ○ 학식·덕망 있는 자 2명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15명)] ○ 법무부 차관 (이하 법무부 장관 위촉) ○ 법학교수: 좌동 ○ 판사: 좌동 ○ 검사: 좌동 ○ 10년이상 경력 변호사 5명(변협회장 추천) ○ 삭제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 관련

- 법무부장관 위촉 법학교수 5명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추천 3명 ⇒ 5명으로 증원 (법학교수 동수)
- 법무부 장관 위촉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명 ⇒ 삭제
 -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법전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현 교육부 대학정책 실장)
 - 국가 공인 자격 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비 로스쿨 교수)

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회의의 검토 의견

(1) 변호사 단체 이익을 위한 셀프 법률 개정안으로서, 국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도외시키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감축에 필요한 다수 의견결론 확보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아닌가?

-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위원’을 제외하고, 변협회장이 위촉하는 변호사 위원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자고 하는 것은 표결로 변호사 수를 정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 ※ 법안 발의 의원 10명 중 법조인 수 6명

(2)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법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제1항에 따라 그동안 ‘시험의 합격은 법전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회장 추천위원들은 로스쿨 취지 및 자격시험의 성격, 합당한 근거 없이 오로지 합격인원의 제한만 주장하는 행태를 보였음 (변사관리위원회 회의록 참조).

응시자대비 합격률 지속적 하락	○ 전년대비(16년 기준) 3.75% 하락 － 제1회 87.15% ⇒ 제6회 51.45% : 35.7% 하락
불합격자 대폭 증가	○ 전년대비(16년 기준) 227명 증가 － 제1회 214명 ⇒ 제6회 1,510명 : 1,296명(7.06배) 증가
응시생 실력수준	○ 면과락자 중 불합격자 매년 증가 － 제1회 21명 ⇒ 제6회 1,510명(71.9배) 증가 ○ 합격기준 점수 대폭 상승 － 제1회 720.46점 ⇒ 제6회 889.91점, 169.45점 상승
법조인 수급상황	○ 전체 법조인 배출수 감소(사법연수원 출신 포함) － 2012년 2,481명 ⇒ 2016년 1,881명, 600명(24.1%) 감소

○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임에도 불구하고 합격인원제한에만 골몰하는 것은 법조계 기득권층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의혹을 면할 수 없으며 로스쿨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임.

(3)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서비스 제공과, 법전원의 안착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교육을 통한 양성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 시험관리위원회에서 법전원 교육과정과 변호사시험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의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송기석 의원 발의 개정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검토 의견	
		수정안	검토 사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15명)]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15명)]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17명)]	형평성을 위해 위원 2명 확대: 추천권 재조정
○ 법무부 장관 위촉 － 법학교수 5명	○ 법무부 장관 위촉 － 법학교수 5명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추천 － 법학교수: 5명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의 연계역할 및 타기관과의 형평성 필요
○ 법원행정처장 추천 － 10년이상 경력 판사 2명	○ 법원행정처장 추천 － 10년이상 경력 판사 2명	좌 동	
○ 법무부 장관 위촉 － 10년이상 경력 검사 2명	○ 법무부 장관 위촉 － 10년이상 경력 검사 2명	좌 동	
○ 변협회장 추천 － 10년이상 경력 변호사 3명	○ 변협회장 추천 － 10년이상 경력 변호사 5명	현행 유지	

현행	송기석 의원 발의 개정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검토 의견	
		수정안	검토 사유
○ 법무부 장관 위촉 － 학식 · 덕망 있는 자 2명	－ 삭제	현행 유지	
		신설 ○ 교육부 장관 추천 2명	법전원 관할 기관인 교육부 위원으로 추천

- ※ 현재 '법학교수 5인'은 법무부장관이 위촉(실무가 교수 2~3명 포함)하고 있음.
- ※ 법전원 교육과 변호사시험의 유기적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에게 위원(법전원 교수 5명) 추천권이 부여되어야 함.
- ※ 유사 직역(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위원 구성을 보면
 1. 법무사: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법무사 규칙 제10조)
 2. 변리사: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고, 특허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특허청 소속 공무원, 변리사, 대학교수, 산업재산권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리사법 제16조)
 3. 세무사: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 3급 공무원 1명(기재부 장관 지명), 국세청 3급 공무원 3명(국세청장 지명),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세무사, 대학교수 등으로서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외2)

(4)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법전원 설립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고, 적정수준의 합격자 수를 보장해야 한다.

- 현재 변사관리위원회는 법조인 위주로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개정을 한다면 법전원 교수를 법무부 장관 위촉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추천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전원 교육 감독 기관인 교육부 장관 추천 2인을 추가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는 위원 구성이라고 사료된다.
- 현재 대한변협회장 추천 위원들은 변호사 공급 과잉을 이유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감축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한변협의 추천위원을 확대한다면 수적 우세를 통하여 합격자 수 감축에 앞장 설 것이다.
- 특히 로스쿨 체제에서는 송무에서 벗어나 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다양한 직역으로 신규 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므로, 단순히 송무 수급만을 토대로 법조인 수급문제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변호사 수급이 어려울 때 확장되었던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 및 변리사 등 유사직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 로스쿨에서 특성화 · 전문화 교육 과정에 맞춰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서 면과락한 자는 합격을 보장하여, 자격 취득을 예측 가능하게 하여 국제 법률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법안을 발의한 의원님들은 법조단체 이익보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안착되어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향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란다.



미래의 대한민국 리더들에게 드리는 말씀

여러분은 높은 경쟁을 뚫고 로스쿨에 입학한 우리나라의 인재들입니다. 미래를 향해 새로운 항해를 하고 있는 인재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장차 우리나라의 리더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홀로서기’를 익히시기 바랍니다. ‘홀로서는 것은 가슴을 치며 우는 것 보다 더 어렵다’고 한 시인이 말했습니다. 이 시인은 ‘아무도 대신 죽여주지 않는 나의 삶,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말하면서 ‘그 끝없는 고독과의 투쟁을 혼자만의 힘으로 견디어야 한다. 부리에, 발톱에 피가 맺혀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술한 불면의 밤을 새우며 <홀로서기>를 익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홀로서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한 것이겠지요.

머지않아 여러분은 법조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는 학교와는 아주 다릅니다. 학교생활에서는 작은 실수나 큰 실수도 용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전쟁터와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부모님이 대신 해줄 수도 없고, 선생님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이 스스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홀로서기를 익히기 위해서는 자립심, 책임감, 자기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립은 영어로 independence입니다. 즉 ‘독립’이지요. 자립하지 않으면 남에게 예속하게 됩니다. 자립하지 못하는 국가는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립심이 중요합니다. 책임감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미래의 리더인 여러분은 학교생활에서부터 책임감

이 강한 사람으로 재탄생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신뢰(self-reliance)는 자존감의 원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곧 다가올 사회생활을 앞두고 매우 긴장하면서 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마음이 흔들릴 때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큰 잘못 없이 지금까지 잘 해왔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크게 잘못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잘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해왔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잘못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잘 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만남과 관계’를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지않아 사회에 나가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새로운 만남과 관계를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만남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긴장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발동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꼭 만나고 싶을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단 시도해보자는 것입니다. 막말로 만나주면 좋고 만나주지 않으면 그만이고 말입니다.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때 그 누군가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메일을 직접 보냅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성의있는 내용의 메일을 써야 합니다. 세상에는 엉터리들이 많기에 엉터리로 보인다면 만나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상대방을 만났을 때도 성의있는 사람으로, 솔직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최

이상복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여러분은 사회에서의 성공할 날을 치열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문가로서 대우를 받고,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큰 꿈을 이룰 것이며, 여러분이 바라는 성공의 고지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상대방이 바쁜 시간에 나를 만나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느냐고 물으면 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남을 통해 제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모든 것은 만남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 형제를 만났으며,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친구와 선후배를 비롯해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만남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된 것은 ‘사람들은 가짜가 아닌 진짜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가짜가 아닌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제 생각에는 ‘진정성’과 ‘신뢰’, 그리고 ‘작은 미소’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위선 떨지 말고 최대한 솔직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머리가 아닌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어찌면 머리가 아닌 태도가 자신을 지키는 무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만나는 사람과 따뜻한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꿈과 성공’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사회에서의 성공할 날을 치열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문가로서 대우를 받고,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큰 꿈을 이룰 것이며, 여러분이 바라는 성공의 고지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부터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내 역사는 내가 쓴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내 역사를 내가 쓰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강인한 체력이 있어야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물찾기를 하면서 세상을 헤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무엇이 보물입니까?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이용했는가에 따라 인생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졸업 후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어 가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낸다면 자신의 삶을 날려버리게 되는 것을 말입니다. 하루를 유익하게 보내면 자신의 삶에서 보물을 찾아낸 것이고 말입니다. 누구나 과거에 허송세월한 것을 후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울삼아 이 순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이 순간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말입니다.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절대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스트레스가 목숨을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잭 런던의 시 ‘머지가 되느니 차라리 재가 되리라’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것으로 당부의 말을 마칩니다. **창**

머지가 되느니 차라리 재가 되리라.
내 생명의 불꽃이
푸석푸석하게 메달라 꺼지게 하느니
찬란한 빛으로 타오르게 하리라.

죽은 듯이 영구히 사는 행성이 되느니
내 모든 원자가 밝게 타오르는
화려한 유성이 되리라.
인간의 진정한 소임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것이다.

나는 단지 연명하기 위해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리라.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온전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리라.

‘대한민국 고3’보다 더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집단이 있으니 이름하여 ‘로3’이다. 고3만큼 절대적인 수면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두꺼운 법서도 알파고처럼 줄줄이 암기해야 하는 시간들. 이 시간들을 묵묵하게 견뎌내고 있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3, 김선영 학생을 만났다. editor 박소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김선영 학생

“서울의 균형점을 잡으려면 조금이라도 가벼운 곳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믿어요.”

Q 원래 법학을 전공한 법학도였나요? 학부시절에는 어떤 학생이었고,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했나요?

A 지금 다니고 있는 충남대학교에서 학부를 졸업했고,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학부 재학 당시에는 활발하지만 조심스러운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웃음). 가정환경이 넉넉하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장학금을 타려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학생회 활동도 했었고, 친구들과 놀기도 좋아했고, 학회활동도 활발하게 했습니다. 학회활동을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회에서의 공정함과 구성원 간 평등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그에 대한 역할이 무엇일까 하는 것은 지금도 늘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Q 로스쿨에 진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A 사실 로스쿨 입학 전 사법시험을 먼저 준비했었고요. 1차 시험에 합격한 적은 있지만, 끝을 보지는 못했어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시험 준비가 중간에 계속 중단되고, 다시 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합격까지 시간이 계속 지연되었어요. 먼저 로스쿨에 입학했던 학부 후배들의 권고도 있었고, 법조인이 되기에 더 효율적일 거란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어느덧 ‘로3’이라고 불리는 로스쿨 3학년 재학생이 되었네요! ‘로3’의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A 아마 전국 로스쿨 원우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일 텐데요. 3년이라는 시간에 비해 해야 할 공부량이 너무 많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을 소화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힘이 들죠(웃음). 다만, 로스쿨 입학 전에는 공부는 혼자 해야 하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예기치 않은 고난이 닥쳤을 때,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 옆에서 함께 잡아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의 역할을 로스쿨에 들어와서 너무도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동기들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많이 느끼며 지내고 있습니다.

Q 외부에서 로스쿨을 보던 시각과 내부인이 되어서 본 로스쿨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최근 부정적인 언론을 통해 로스쿨 학생을 금수저로 보는 시각이 꽤 많았는데요. 저는 처음 로스쿨에 들어올 때부터 3년 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입학을 결심했습니다. 성적장학금도 받았지만, 현재는 경제상황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비에 대한 부담감 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 학기 모두 장학금을 지급받은 상황입니다.

Q 사법시험 준비 시절과 비교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의 차이가 있나요?

A 오히려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보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훨씬 덜한 편입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보려면 대부분 서울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 저는 주거비 및 학원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여 비용을 줄이려고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로스쿨이 경제적 격차 부분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수도권 외 거주자에 대한 차별도 오히려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장학금 혜택을 더 높이고, 지역 로스쿨에 대한 경쟁력도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Q 6개월 후면,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졸업 후에는 어느 분야에서 법조인으로서의 첫발을 딛고 싶은가요? 또 꿈꾸는 법조인의 모습이 있다면요?

A 어떤 직역이든 궁극적으로는 노동, 송무 분야에서 법조인으로 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원하는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쌓고 싶고, 소송뿐만 아니라 관련분쟁 사건의 처리 및 연구 일체를 포함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 하나가 서울의 균형점을 잡으려면 가운데에 머무르는 것인 아니라, 조금이라도 가벼운 곳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조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약자 · 소수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들이 평범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되는데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김선영 학생이 알려주는 로스쿨 입학 노하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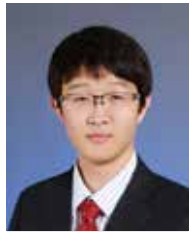


▲ 리트,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 리트 기출 문제를 구해서 매일 시간에 맞춰 풀어보고, 틀린 부분은 해설을 보며 답을 맞춰보았다. 그 후 모든 문제를 다시 보며 묻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집중해서 살펴 보았다. 그러다보면 답이 도출된 이유를 알게 되고, 결론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질문과 각 제시된 지문에 핵심단어 또는 문장에 살짝 표시를 해 두었다. 이는 ①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해서 답을 틀리거나, ②본문과 변형된 선택지 간 내용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서 틀리는 것을 막기 위한 연습이다.

▲ 문제의 패턴에 익숙해지기 : 추리논증의 경우 점수를 올리기 매우 어려웠고, 풀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문제를 섞은 후 반복해서 풀었고, 잘 맞추는 문제와 자주 틀리는 문제를 구분하고 유형화하여, 잘 풀지 못하는 문제에는 따로 플래그를 붙여 두었다. 리트 시험 당일에는 자주 틀리는 문제만 가져가서 보았다. 결론적으로 문제의 패턴에 익숙해지는 것에 집중했다. 하지만 강의나 스터디 등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입학한 후의 청사진을 제시한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의 경우 최대한 솔직하게 쓰려고 노력했고, 과거의 수상경력이나 대외 활동 등 해냈던 일보다는 로스쿨에 입학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연차별, 학기별로 작성했다.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원한 것을 강조했던 것이 오히려 주효했다고 생각한다.

▲ 생각은 깊게, 답변은 차분하게 : 면접 관련 책자보다는 신문읽기를 추천한다. 신문을 읽다가 모르는 내용은 바로바로 찾아보고 질문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또 면접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의 경우 익숙한 질문을 받으면 바로 답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조금 더 생각한 후 답할 것을 권한다. 잘 알더라도 시간을 갖고 머릿속으로 차분하게 정리한 후,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예상보다 면접관 분들에게서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잘 기다려 준다.



무변촌 없애기 사업을 소개합니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센터장
황인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이하 “한공센”) 센터장을 맡고 있는 성균관대 로스쿨 4기 졸업생 황인규 변호사라고 합니다. 한공센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 산하단체로, “변호사와 학생들이 국민에게 봉사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 2016. 6. 3.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 지면을 빌어 그 동안 한공센이 걸어온 발자취와,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지역위원회의 “무변촌 없애기 사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대한 간략하게 한공센의 설립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로스쿨 덕분에 변호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 빛을 얼마간이라도 갚고자 재학중에는 학생회장으로 활동했고, 졸업 후에는 성대로스쿨 학생지도센터에서 재학생 및 N시생의 진로와 학습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12월, 소위 “법무부 사태”를 맞이하여 한법협에 가입했습니다. 그 때 후배들을 돕고 싶어하는 선배 변호사들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 - 재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는지, 졸업생들은 초년차~저년차 변호사로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 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로스쿨 제도가 국민에게 ‘그래서 너희가 국민에게 무엇을 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회 각처에서 섬겨주신 자랑스러운 선배 변호사님들과, 유급과 변시 불합격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지역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도운 후배님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로스쿨 제도는 (실상 그 해결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폐 중 하나라는 누명을 쓰고 있었고, 누군가 이 사정을 증언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가장 좋은 방법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로스쿨 재학중인 학생들이 함께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한법협 회원 중, 공익과 인권활동의 필요성을 느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하자.’고 모였습니다.

이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2016. 6. 3. 한공센이 공익소송위원회와 봉사위원회, 그리고 사무국(후에 사무처로 개편)의 조직을 갖추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개소식을 가졌고, 로스쿨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재학생과 함께 국민에게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약 1년간, 한공센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TFT 구성으로 시작된 공익소송위원회는 이후 제1호 공익소송으로 국정농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선토론 청각장애인 차별 시정을 진정했습니다.

봉사위원회는 자오나학교, 까리따스 사랑의 밥집, 은평의 마을, 요셉의원,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노력봉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강화도 법률사무소 개소식 단체사진



강화도 법률사무소 내부전경



강화도 법률사무소 전경



지역위원회는 몇 달 동안 강화군청과 법률상담터 방문, 편당과 인테리어 등의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한 끝에, 마침내 강화도에 개업하실 변호사님을 모시고 지난 5.1.(월) 제1호 지역사무소를 강화도에 개소하였습니다.

함께 로스쿨 제도의 선한 증인이 되어주실 후배님들을 기다리며, 여러분이 활동하실 수 있는 터를 닦겠습니다. 한공센이 앞으로 하나갈 활동에, 특히 무변촌 없애기 프로젝트 그 첫 번째 사업인 강화도 지역 변호사 파견에 많은 기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던 중 교육 분야에의 특화 필요성을 느껴 신설된 교육위원회는, 도봉구에 소재한 LOE에서 5주간 “꿈나무가 노는 법” 교육을 시작으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대상 인권교육, 요건사실론을 취득할 수 있는 리걸 톨플레잉 게임 개발 및 강의를 해왔습니다. 또한 법제위원회에서는 제1호 법안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들었고, 영화인과 함께하는 밤이라는 행사를 치렀으며, 앞으로도 활동폭을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예비위원회는 영화제와 답안지 작성법 특강, 북스터디 등을 통해 센터 회원분들과 로스쿨 신입생/재학생들과의 가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koreanlbahuman)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작은 한한법협 회원님이 공유해주신 SBS 마부작침, “무변촌을 아십니까?” 라는 기사였습니다.

함께 기사를 읽은 센터원들 사이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무변촌을 없애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지역위원회가 결성되어 박대영 변호사님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이후 무변촌인 강화도(네, 강화도도 무변촌이었습니다.)에서 우리가 무변촌을 없애자는 “강화도 선언”을 하였습니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화도 선언 -

이 땅에 최초의 변호사가 등장한지 어언 110년, 대한민국의 변호사는 총 인원이 2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양적, 질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오늘날 변호사라는 직업은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한 심판대 위에 서 있다. 안으로는 변호사들간의 갈등과 생존권 보장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고, 밖에서는 변호사들에 대한 불신이 점점 깊어져만 가고 있다.

이 시점에 우리는, 과연 변호사라는 우리의 직업이 앞으로도 가치있는 소명으로서 기능할 것인지, 더 나아가 변호사라는 직업이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묻는 엄중한 시험 앞에 서 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변호사의 본분을 기억하고자 한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변호사가 처음으로 배출된 후 110년이 지나도록, 전국의 60개가 넘는 시군의 수백만 국민들은 ‘내 변호사’, ‘우리의 변호사’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다. 수백만 국민들이 법률상담 한 번 받기 위해 아픈 몸과 마음을 부여잡고 산 넘고 강 건너 도시까지 나와야 했던 110년의 시간 동안, 변호사들은 한 번도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시골로 들어가려는 변호사들은 바보취급을 당했으며, 편안한 도시, 좋은 사무실에 앉아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변호사

의 품위라고 포장되어왔다.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편안함과 품위를 위해 수백만 국민의 기본 인권 옹호를 포기하고, 국민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눈감아 온 것이다. 변호사는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국민들에 의하면만 존재할 수 있다. 헌법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천명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 기본권임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우리들이, 지역의 원격성만을 이유로 지금까지처럼 수백만의 국민들을 앞으로도 외면한다면, 변호사들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말은 공허한 구호가 될 뿐이다.

강화는 우리 민족의 뿌리가 있는 곳이자, 외세에 저항한 곳이며, 근대를 받아들이는 곳이다. 역사와 전통의 땅이자, 19세기에 가장 먼저 근대화된 이 땅에, 21세기가 되도록 단 한 명의 변호사도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역사와 전통의 고장 강화에서, 이 땅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무변촌이 모두 사라지는 그 날까지, 모든 국민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노라 선언한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지역위원장 **박대영**

이후 지역위원회는 몇 달 동안 강화군청과 법률상담터 방문, 편당과 인테리어 등의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한 끝에, 마침내 강화도에 개업하실 변호사

님을 모시고 지난 5.1.(월) 제1호 지역사무소를 강화도에 개소 하였습니다.

함께 로스쿨 제도의 선한 증인이 되어주실 후배님들을 기다리며, 여러분이 활동하실 수 있는 터를 닦겠습니다. 한공센이 앞으로 하나갈 활동에, 특히 무변

촌 없애기 프로젝트 그 첫 번째 사업인 강화도 지역 변호사 파견에 많은 기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

황인규 변호사

고려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학부 졸업 후 공군 학사 장교로 복무하다가 성대 로스쿨 4기로 합격했습니다. 성로 제5대 학생회장으로 제7,8,9대 법학협에서 활동했고,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후 성로 학생지도센터 상근변호사로 일하면서 한공센 센터장을 맡았습니다. 현재 회계법인에 재직중이며 성로 조세법 학술박사 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2009년 로스쿨 도입 이후 최초 부녀 변호사 배출

2009년 로스쿨 도입 이후 처음으로 부녀 로스쿨 변호사가 나왔다. 4월 26일(수)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53)의 장녀인 김혜라 씨(26)가 14일 제6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김진권 변호사는 2010년 전남대 로스쿨에 입학해 2013년 제2회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다. 그는 국회에서 10년 이상 보좌관으로 일해 온 입법 전문가다. 그의 장녀인 김 씨는 2013년 동아대 로스쿨에 입학해 올해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며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게 됐다. 로스쿨 출신의 부녀 변호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혜라 변호사는 “로스쿨은 전공과 나이 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어 아버지도 늦은 나이에 변호사로 전직할 수 있었다”며 “변호사 선배인 아버지의 조언을 받아 열심히 일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동아일보 2017-04-26

첫 트랜스젠더 변호사 공익활동, 서울대 로스쿨 동문들이 돕는다

지난 5월 7일(일) 서울대 로스쿨 6회 졸업생들이 조성한 공익기금 ‘공명’은 자원대상 ‘공익전담변호사’로 박한희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바꾼 박 변호사는 지금까지 확인된 한에서는 국내 첫 트랜스젠더 변호사다. 올해 초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로, 5월 중순부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에서 일한다. 박 변호사를 지원하는 공익기금은 서울대 로스쿨 6회 졸업생 70여명 후원금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박한희 변호사는 성소수자 경험을 토대로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이들을 성소수자를 위해 최선의 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점과 젊고 열정적인 법률전문가라는 점에서 선정위원 만장일치로 뽑혔다. 박 변호사가 일하는 희망법에 월 170만~180만원을 지정기탁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2017-05-07

새내기 변호사 560명. 6개월 '실무연수' 돌입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5월 8일(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6개월간 실무연수교육 대장정에 돌입했다. 올해로 여섯 번째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는 10월 27일(금)까지 진행된다. 올해는 560명이 연수를 신청했다.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지난해 합격자 중 실무연수를 마치지 못했거나 연수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연수 참가자는 6개월간 강의교육 45학점과 모의기록연습 15학점, 현장연수 및 연수강평·수료식(필수) 30학점 등 총 90학점을 이수해야 실무연수를 마친 것으로 인정받는다.

기사출처: 법률신문 2017-05-11



경북대 로스쿨 공익인권법학회 유기견 위한 봉사활동 참여

지난 5월 3일(수) 경북대학교 로스쿨 인권법학회 회원 20여 명은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호루라기 쉼터에 방문했다. 호루라기 쉼터는 20~30여 마리의 유기견과 유기묘가 있는 보호센터로, 동물보호에 관심이 높은 인권법학회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찾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강아지 배변을 치우는 보호소 시설 정리를 시작으로 강아지들과 강변 산책하기, 후원물품 정리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인권법학회장 백지예 학생은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유기견 입양을 원하는 어머니와 아이들이 센터에 방문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변화하는 것을 보며 봉사자로서 뿌듯함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화여대·고려대 로스쿨 젠더법학회, 첫 연합 봄소풍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소속 젠더법학회와 고려대학교 로스쿨 소속 젠더법학회가 지난 5월 7일(일) 서울 용산구 이촌 한강공원에서 제1회 연합 봄소풍을 개최했다. 이번 봄 소풍 행사는 젠더법학회 간의 화합과 연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두 학회는 자신의 학회를 소개하고 그간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친목을 위한 게임도 즐겼다. 이화여대 법전원 젠더법학회는 ‘16년 초 창립되어 현재 약 35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1주일에 한번씩 열리는 정기세미나에서 지정 판례와 판례평석을 읽은 후 토론을 진행해오고 있다. 고려대 로스쿨 젠더법학회는 ‘16년 11월에 창립되어 현재 약 20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다. 두 학회는 이날 회원들의 자기소개와 더불어 향후 공동 활동 계획도 논의했다.

기사출처: 법률신문 2017-05-24

전남대 로스쿨에서 2017년 공익인권 세미나 & 간담회 열려

5월 22일(월) 전남대학교 로스쿨 2호관 601호(광주은행홀)에서는 2017년 공익인권 세미나&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전남대학교 로스쿨 인권법연구회가 주최했으며, 1부와 2부의 순서로 나누어서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한센병력자 소송의 쟁점과 인권법적 의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보는 인권침해의 사법적 구제’, ‘광주시 난민 실태 및 난민법이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고, 2부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과 전남대 로스쿨 학생들 간의 질의응답이 오고 갔다.

변호사시험 합격을 피하는 법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송범준**



놀 때조차도 몸에 새긴 문신처럼
공부를 생각하며 놀아야 합니다.
공부가 일상생활에
녹아들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합격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꼭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합격 수기 부탁을 받고 난 지금 실력과 인격, 많은 연륜을 갖추신 선배님
들께 비례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과 함께 합격 후 흔히 범하기
쉬운 과거 수험 생활의 미화나 과장의 우를 나 자신이 범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듭니다. 그러나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자극 또
는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의 수험 생활에 대해 솔직히 적어보
고자 합니다.

낮의 더위가 무색할 만큼 무척이나 부드러운 바람이 부는 밤입니다. 시험
에 합격한 후 고마웠던 분들에게 합격소식을 알리고 실무수습을 다니면서
처음으로 가지는 여유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까맣게 높던 정상을 향하여 묵묵히 법서를 보던 새벽이건만... 돌이켜 보
니 무수한 실패와 좌절을 반드시 합격하겠다는 집념으로 버텨낸 고난의 세
월이었습니다.

저는 소위 이쪽세계에선 고시 노장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1999년 여름
에 처음으로 신림동 고시원에 들어간 후 2017년 6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
했으니 거의 20년이나 수험생활을 해왔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횟수만 해
도 10번이 넘어가고 그 만큼의 깊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작금의 변호사 시
험은 수험기간이 짧게는 3년부터 길게는 8년 만에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므로 저의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도움이 안될 것 같아 이 글을
써야할지 고민을 했었지만 이제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은 수험방법에 있
어서 큰 차이가 없고 제가 시험에 떨어진 만큼이나 불합격의 이유를 찾기

위해 깊은 탐색을 했었기에 누구보다 불합격의
이유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수기의 제목을 ‘합격을 피하는 법’이라
고 이름 지었습니다. 예전 신림동에서 인기를 끌
었던 ‘불합격을 피하는 법’에서 모티브를 얻었는
데 처음 이 책을 보고 책의 두께만큼이나 불합격
의 이유가 이렇게 많다는 것에 놀랐던 기억이 있
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 합격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제 독자분들은 앞
으로 언급할 내용 중에 현재의 자신에게 몇 개나
해당하는지 세어 보고 본인이 합격에 얼마나 멀
리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下記사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얼마든
지 다른 견해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合格을 避하는 法 (순서와 중요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1. 실력 없는 변호사가 되느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공부해서 실력을 쌓겠다

제가 볼 때 수험기간을 늘리는 가장 큰 덕목(?)
입니다. 꼴찌로 합격했다고 해서 실력이 없는 것
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합격 후 실무수습기간을 어
떻게 보냈는지에 따라 변호사의 능력차가 발생하
므로 이러한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의 특성은 3학년이 되어서도 기출문제
집보다 교과서를 주로 공부하고, 암기보다는 이
해를,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 하루 종일 학구적으
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매년 각 대학의 최고 수준의 인재가 후보로 들어
오고 매년 시험 커트라인은 예년에 비해 20점 이
상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로스쿨 과정을 스스로
늘려 4, 5년만에 졸업을 한다면 이미 커트라인은
올라가 있고 쟁쟁한 후배들과 겨루어야 하는 위
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로스쿨에 입학하고 3년만
에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자를 초시
합격생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합격률은 70퍼센트
에 육박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70
퍼센트의 확률을 버리고 30퍼센트의 확률을 선
택하는 것은 합격을 피해가는 典型입니다.

2.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놀 때는 놀겠다

로스쿨의 수험기간은 무척이나 짧습니다. 입학하고 기본 3법을 중심으로
일 년간 배우고 민소, 형소, 상법, 행정법, 선택과목의 기본적인 부분을 다
시 일 년간 학습합니다. 변호사 시험에 관계된 법을 한 번 보는데 2년이나
걸리는 셈이니 시간 활용을 잘 하지 않고 합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즉
놀 때조차도 몸에 새긴 문신처럼 공부를 생각하며 놀아야 합니다. 공부가
일상생활에 녹아들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합격에 이르는 지름길이
라는 점을 꼭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3. 공부장소는 중요치 않다. 더운 날 카페에서 시원한 커피를 마시며 法書を 보 겠다

카페에 가보면 시원한 에어컨 앞에서 아이폰을 쏘고 책을 보는 장면을 쉽
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료수를 마시며 지나가는 각양각색의 사
람들을 봐가며 즐기면서 공부하니 책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합격에 편
한 길은 없습니다. 학생들로 꽉 차 숨쉬기도 힘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
람이 바보는 아닐 것입니다. 생활을 단순화하고 규칙적으로 수험생활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을 한 사람 중 대부분이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공부에 왕도는 없습니다. 쉽게
합격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변, 불굴의 집념을 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시험도 그에게 굴복할 것입니다.

4. 비록 이번 시험에선 준비의 미비로 합격가능성이 없지만 시험장에는 들어가 분위기를 살피는 등 참가에 의의를 두겠다

Warming-Up이라는 생각을 버렸으면 합니다. 공부한 기간이 짧다(대부
분의 로스쿨생의 경우 공부한 기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실력이 모자란다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특정과목을 준비하지 못했다(거의 다 그
렇지요) 등의 越權이 포함된 自己 判斷을 근거로 ‘시험을 포기하고 참가하
는데 의의가 있다’는 식의 응시는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부한 양의
多寡가 시험합격의 필요조건은 아니므로 그 때까지의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보겠다는 자세로 시험에 응한다면 의외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최선을 다해 이 시험을 치겠다’라는 자신감은 의
외로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포기한 자에겐 합격이
라는 요행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5.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어디까지 않는다고 굳게 믿는다

이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너무 지나치게 되는 것의 위험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노장 수험생들의 경우 각 과목당 교과서의 회독수가
20회 이상인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경우엔 교과서 전체를 처음부

터 끝까지 한번에 설명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만 구체적인 사례에 들어가서는 즉각적인 대답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미 많은 공부
가 된 노장 수험생과 다른 학생들과는 로스쿨 입
학시부터 큰 격차가 발생하는데 시험결과는 의외
로 시작의 격차와는 무관한 경우가 꽤 발생합니
다. 나는 민법총칙을 십년전에 마스터 했지, 시
험에 나오는 데는 뻔하니 그것만 보자, 어차피
이 부분은 나와도 틀리니 보지 말자, 시험은 벼
락치기지 등과 같은 선입견이 결국 이들을 나태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베یکن이 자기 철학의
출발점으로 선입견의 배제’를 들고 나온 것을 음
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노장 수험생 뿐만
아니라 입학전에 법대 혹은 사법시험을 준비하
신 분들도 지금 시작하는 동기생들과 같은 자세
로 공부하시면 반드시 영광의 날이 올거라 믿습
니다.

PS. 시험에 있어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설명한
다면 독자분들을 무시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객관식 점수가 당락을 좌우한다는 것을 말하는
건 주지의 사실이니 밝히는게 무의미 합니다. 법
학도 암기가 필요합니다. 한 번 이해하였다고 다
음에 다시 볼 때 기억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이제 저의 어눌한 합격의 변을 마치며 그동안 항
상 걱정스럽게 지켜보시며 뒷바라지에 고생하신
부모님과 옆에서 묵묵히 인내해온 아내에게 고마
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주신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원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도서
관에서 책과 씨름하고 있는 독자분들에게 마지막
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의 고통이 크고 길
수록 그 결실도 크고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여
러분의 합격을 두손 모아 기원하며 이 글을 맺습
니다. **창**

세계적인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만남, 제2회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에 다녀와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엄유정
로스쿨 창(窓) 명예기자 3기



로스쿨 재학생의 신분으로
국제적인 컨퍼런스에 참여한 경험은
지식재산 관련 서적을 찾아보고
수업을 듣거나 교내 학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는 또 다른 자극과
놀라움을 전해주었습니다.

I. 들어가는 말

특허와 상표를 비롯한 지식재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저는 로스쿨 입학 후 해당 분야의 법령과 사례들에 대해 공부할 다양한 기회를 접하게 되어 많이 들떠 있었습니다. 로스쿨 첫 학기가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9월에 개최될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ourt Conference)에서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 외국어지원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그 준비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 분야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비해 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컨퍼런스에 재학생으로서 참여한 후기를 공유하면서 올해 특허법원 컨퍼런스를 담당하시는 판사님과의 인터뷰를 신습니다.

II. 지원 및 선발 과정

작년 4월 말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올라온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확인했습니다. 2016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 조직위원회는 전국 로스쿨 학생 중 영어에 능통한 사람을 대상으로, 컨퍼런스 관련 영문 번역 및 감수 업무를 맡길 자원봉사자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관심 분야의 트렌드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국제적인 컨퍼런스에 참여함으로써 책보다 넓은 세상을 느끼고 싶었고, 제가 가진 약소한 능력을 활용하여 행사의 준비와 진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이끌렸습니다.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낸 뒤, 5월 초에 선발 통지를 받았습니다.

III. 자원봉사자 활동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은 5월 중반에 특허법원 수석부 판사님들과 대면하는 자리를 가지면서 자원봉사자들의 업무를 비롯해 컨퍼런스 기간 중 특허법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들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판사님들을 직접 뵈고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은 처음이었는데, 전문 용어를 활용해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야의 동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업무는 1학기가 끝나고 한 주 정도가 지난 6월 말에 주어졌습니다. 자원봉사자마다 컨퍼런스의 세션을 분담하여 각국의 판사님들께 발송될 질문지의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하였는데, 저는 질문지 번역을 한 차례 마친 뒤에도 두 세 차례 재검토를 거치다보니 결과적으로 질문지가 이미 외국 판사님들께 발송된 이후에 첫 번역이 제출되는 잘못이 생겨, 주어진 기간 내에 맡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죄송한 마음과 반성이 무척 컸습니다. 이후 7-8월 동안 주어진 세션 소개문 작성, 번역 감수와 용어 정리 업무 때에는 받은 즉시 착수하여 당일이나 익일 내로 발송 드렸고, 아무리 늦어도 업무를 받은 날로부터 2-3일이 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행사의 일정이 정해진 만큼 재차 정확도를 높이기보다는 기한 내에 신속한 진행과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새삼 실감했고, 기본적으로 컨퍼런스 자체가 토론형식에 기반하며 메일을 통한 질문과 답변으로 사전 자료가 제작되는 만큼 직역보다 매끄러운 번역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



컨퍼런스 안내 입간판 옆에서

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더 적절한 예시표현과 실무 문헌을 탐색하며 알맞은 표현과 적합한 전문용어를 새로 익히기도 했습니다.

IV. 컨퍼런스 참석

2016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는 9월 7일과 8일 양일간 진행됐습니다. 이를 모두 참석하고 싶었지만 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수업을 고려하여 컨퍼런스 2일째인 9월 8일에 특허법원에 방문했습니다. 제2회 컨퍼런스의 대주제는 “Court, IP and Future”로 지식재산권과 법원, 그리고 특허법원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첫째 날인 9월 7일에는 컨퍼런스(5개 세션), 둘째 날인 9월 8일에는 워크숍(3개 세션)이 진행되었고, 세션별로 미주와 아시아, 유럽 각국에 위치한 지적재산권법원의 판사 분들이 참여하여 소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준비한 자료들의 구성, 내용의 깊이에서 치열한 고민의 흔적과 노력, 전문성, 그리고 IP 분야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1일차에 진행된 컨퍼런스에 참여하지 못한 점은 너무 아쉬웠지만, 2일차에 진행된 워크숍에서 각국의 특허재판 실무에 관한 토론을 지켜보며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우선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법률가들이 한 곳에 모여 견해를 나누는 장면 자체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특별했고, 그것이 제 관심 분야에 관한 경험과 생각들인 만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더욱 기뻐했습니다.



판사님들과의 첫 만남 후

V. 맺음말

로스쿨 재학생의 신분으로 국제적인 컨퍼런스에 참여한 경험은 지식재산 관련 서적을 찾아보고 수업을 듣거나 교내 학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는 또 다른 자극과 놀라움을 전해주었습니다. 로스쿨에 지원할 때에만 해도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된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입학하자마자 바로 그 분야의 심도 있는 국제 토론 행사를 가까이서 지켜 볼 기회를 얻게 되어 학생으로서 사고와 시야를 넓힐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기관을 방문하거나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관심을 ‘목표’로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본 후기 기사가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로스쿨 원우 여러분의 관심을 높이고 본 분야의 국제적인 행사를 소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컨퍼런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위해, 2017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를 담당하시는 김기수 판사님과의 인터뷰를 함께 수록합니다!

김기수 판사님은 수학에 대한 사랑으로 수학교육을 전공하셨는데, 법학과 이과 적성과의 결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고민의 답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판사로 재직하시는 중 법원 내부의 지식재산권 커뮤니티를 통해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공부를 계속 해 오셨다고 합니다.

Mini interview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지식재산 전담 제11민사합의부와 대구에서의 근무를 거쳐 작년 1월부터 특허법원 근무를 시작하신 판사님은 현재 기획 법관으로서, 각종 행사들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김기수 판사님

Q: 국제특허법원컨퍼런스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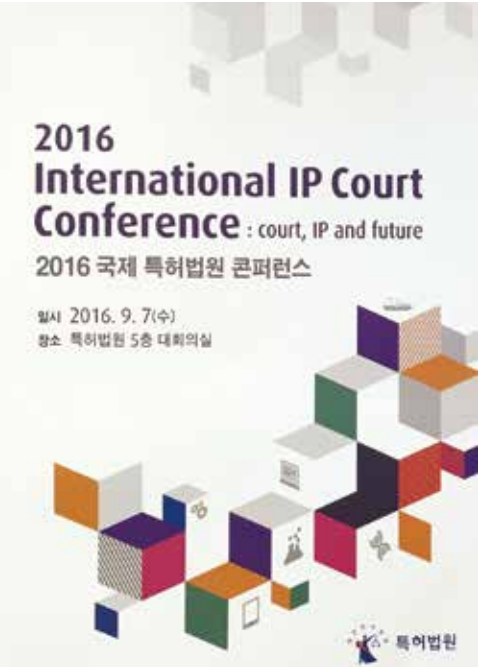
A. 지적재산소송, 특허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일반 외국인인 사건의 비율이 30% 정도로, 다른 사건에 비해 높습니다. 특허권은 동일한 기술에 대해 여러 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 특허에 대한 분쟁이 전 세계 법원에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지적재산권의 국제화 경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분쟁 해결의 초점을 세계적인 표준(Global Standard)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특허법원 간의 정보 교류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허법원 컨퍼런스는 그 교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CAFC(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라는 연방항소법원이 관련 사건들을 전담하고, 독일의 특허법원, 일본의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중국의 지식재산권법원 등등 각국마다 특허 지식재산전문법원들이 있거든요. 먼저 우리 법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지식재산 전문법원에 있는 법관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컨퍼런스를 개최하자는 기획이 있었고, 이것이 2015년에 처음 실현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제1회로 앞서 언급한 전 세계의 저명한 특허법관들을 한자리에 모이시게 해서 서로 알고 있는 특허 쟁점들에 대한 지식도 함께 공유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구요. 그렇게 시작한 컨퍼런스가 작년에 제2회, 올해 제3회를 맞았습니다.

Q: 제1, 2회 컨퍼런스의 경우 어떤 주제로 열렸는지, 그리고 올해 열리는 제3회 컨퍼런스의 주제와 일정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세요!

A. 네, 제1회 때는 “Court, IP and Innovation”이라는 주제 아래 주로 UPC(Unified Patent Court)라는 유럽 통합 특허법원과 관련하여 ‘혁신’과 관련한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유럽 통합 특허법원은 일종의 지식재산 법원들 간 협력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시아권에서도 그와 같은 통합에 대한 구상의 기회로 삼자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컨퍼런스 포스터



컨퍼런스 당일 특허법원

허법원은 일종의 지식재산 법원들 간 협력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시아권에서도 그와 같은 통합에 대한 구상의 기회로 삼자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년, 제2회 같은 경우 “Court, IP and Future”라는 주제 하에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작년에는 국제재판과 관련된 내용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당사자 사건이 꽤 많은 만큼 그들이 특허소송을 제기할 때 마주하는 지리적, 시간적, 특히 언어적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자기 언어로 변론할 수 있는 재판부(국제재판부)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당장 영어로 재판을 하게 되면 많은 불편함이 해소되면서 한편으로 그 자체가 아주 획기적인 방식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 방법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올해의 컨퍼런스 주제는 “Court, IP and Business”입니다. 결국 특허 법원은 지식재산 권리자들과 실제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분들이 권리를 더 잘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선호하는 법원과 재판에 대한 관점을 경청하려는 차원에서

Business라는 주제를 잡아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컨퍼런스는 2017년 9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 동안 진행됩니다.

Q: 작년의 경우 로스쿨 학생들이 외국어지원팀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기회를 가졌는데, 혹시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학생들이 준비나 진행과정에 참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나요?

A. 사실 작년에 많은 학생들이 와서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학생분들에게도 좋은 경험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로스쿨 학생 분들이 공부에 많이 바빠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측면도 있어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로스쿨 학생들의 신청을 받게 된다면, 6월쯤에는 외국어지원 또는 홍보 관련 도



2016년 제2회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 현장



처음에 법조인이
되겠다고, 법조계에
발을 들이겠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에
품었던 꿈이나 이상을
아무리 공부가 많이
힘들고 현실이
딱딱하더라도 잃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순수하게 남겨두면,
나중에 변호사 시험을 거쳐
실무에 나갔을 때
법조계 전체가 국민들에게
신뢰와 존경받는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움에 관해 공지를 내게 될 것입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특허법원
측에도 필요성이 인정되고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선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Q: 준비나 진행 측면의 참여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컨퍼런스 당일 로
스쿨 재학생들의 참여에 있어서 제한은 없을까요?**

A: 그 부분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컨퍼런스가 5층 대강당에서 개최 예정인
데, 250명 정도 수용 가능한 규모라 작년의 경우에도 소회의실에서 영상
으로만 참관한 분들도 계시고, 방송으로만 보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보다
큰 장소에서 컨퍼런스를 진행하면 참석 인원엔 제한이 덜 하겠지만, 관심
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인원배정은 여전히 어
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특허 유관 기관, 변리사, 법관, 산업계 중소기업 종사자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자리를 배정해 드리고 학생들을 위한 자리도 배정되
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여력이 없습니다. 물론 올해
도 작년처럼 일부 학생 분들이 준비과정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참여하신

그 학생 분들은 컨퍼런스 당일 참석에 문제가 없
을 것으로 보입니다.

**Q: 특허법원에서 새로 실시하게 된 외국어시험
재판이나 얼마 전 새로 설립한 국제지식재산법연
구센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A: 국제지식재산법연구센터에 대해 먼저 설명 드
리면, 특허법원에서 국제적 특허 분쟁 조정엔 대
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있어 특허법원이 나
아갈 방향을 연구할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를 절
감하고 올해 5월 30일에 국제지식재산법 센터를
개원했습니다. 판사님들 중 연구위원 몇 분을 모
시고 연구원 2명을 새로 선발했는데, 크지 않은
시작이지만 이후 선발 인원은 점점 더 늘어날 것
으로 예상합니다.

지식재산법연구센터에서는 주로 외국어를 기초

로 한 비교법적 연구나 재판 등에 대한 연구, 또는 특허법원의 국제 행사
에 관한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아무래도 개별 법원 내 전문연
구센터가 설립된 것이 대한민국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사실 전 세계 IP 전문 법원 중에서도 이와 같은 자체 연구기관을 가진 법원
은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 연구센터를 가진다는 게 전 세계 IP법원들과
의 경쟁에서 한 발짝 앞서나가는 것이기도 하죠. 로스쿨 학생들도 연구센
터의 연구위원들을 선발할 때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면 좋은 경력과 경험
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연구원이나 특허법원 내 재판연구원은 로스쿨 학생들의 진로와 직결될
수 있는데, 수험 때문인지 학생들의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편이기
도 하고, 정보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향후 특허법원이나 지식재산 분야
와 관련지어 로스쿨 학생들이 진로나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
을까요?**

A: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지식재산권 분야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더 커져 나갈 분야이기도 합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도 지식재산 분야는 중요하
고, 앞으로 점점 더 그 비중은 커져 갈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의
가치와 그에 관한 분쟁을 생각할 때 앞으로 전망 있는 분야를 꼽는다면 지
식재산 분야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식재산 분야의 경우 국제적인 협력관계와 분쟁을 다룰 수 있는 기
회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고 봅니다. 국외 클라이언트와의 접촉을 통해 사건을 다루는 것은 국내에
서는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힘들기도 하구요. 전문성으로 인한 수익 또한
일반 분야보다 전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특허 사건 특유의 전
문성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진입장벽은 있습니다.

그 답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물론 다른 사람보다 2-3배 관심을 가지고 노
력해야 하지만, 일단 특허 사건을 경험하고 전문성을 갖추면서 명성을 쌓
게 되면 그로 인한 일을 더 재미있게, 스트레스 없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법원 내에서도 특허를 다루는
판사 분들은 소수입니다.

총 17분의 판사님들께서 우리나라의 특허소송을 모두 담당하고 계시죠. 변
호사가 너무 많다는 점이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그 중 특허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작은 기회가 되더라도 한두 가지의 일을 통
해 이 분야에 발을 디디고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른 분야만 했을 때에는 얻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는 점이 지식재산법의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도 특허나 상표와 같은 지식재산권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소수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넓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 관련 활동들에 참여를 했
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Q: 너무 자세하게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
립니다, 판사님. 마지막으로, 전국의 로스쿨 재학
생들 대상으로 조언이나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일단 너무 너무 힘들게 공부해서 로스쿨에 들
어갔음에도 또 정말 힘든 시간을 거쳐 변호사 시
험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 학생들께 일단 너무
수고가 많고, 힘내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변호사 시험이라는 한 가지 목표만 바
라보고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 로스쿨에 입
학할 때 가졌던 어떠한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꿈이 희석되고 현실에 몰각되지 않을까 하는 안
타까움과 우려도 있습니다.

처음에 법조인이 되겠다고, 법조계에 발을 들이
겠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에 품었던 꿈이나 이상
을 아무리 공부가 많이 힘들고 현실이 딱딱하더
라도 잃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순수하게 남겨두
면, 나중에 변호사 시험을 거쳐 실무에 나갔을
때 법조계 전체가 국민들에게 신뢰와 존경받는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고 생각해요. 그래서 후배님들이, 힘든 과정에서
도 마음에 꿈과 목표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16일에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제4회 특허법원변론경연대회가 개최됩니
다. 작년과 재작년에 우승팀 및 입상팀에게 상당
한 금액의 상금이 주어졌고, 특허법원에서 실무
수습을 받을 수 있는 특전과 특허청 입사 시 가
산점도 부여됩니다.

정말 좋은 기회인데, 관심을 가지고 팀을 짜서
도전해 보면 그 과정에서도 배우고 얻는 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창](#)

서울대학교 로스쿨 입학 수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여인영



**학부생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입시준비는 좋은 학점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학점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높은 학점평점과
둘째, 전공충실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여인영입니다. 저의 경험에 비추어 로스쿨 입시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격자 성적

아마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학점/리트가 안정권인가’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2016년도 기준 서울대학교 로스쿨 합격자 학점 평균은 96(4.0), 중간값은 96.3(4.03)입니다. 합격자 리트 평균은 131.6, 중간값은 132.2입니다. 2017 합격자 평균은 이보다 조금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심화전공 학점 3.93에 리트 139.7점, 텡스 937점의 성적으로 로스쿨에 지원했습니다. 기타 자격증이나 법학 관련 활동은 없었습니다. 저의 정량성적은 M모 사설업체의 모의지원 기준 전체 45등, 자교 25등 정도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로스쿨 (150명 선발)기준 전체 90등 이내, 자교 70등 이내라면 안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로스쿨 입시제도

로스쿨 입시제도에는 1차의 정량평가, 2차의 정성평가(자기소개서), 3차의 면접이 있습니다. 각 전형별 비중은 입학설명회에서 공개됩니다. 입학설명회는 리트 시험 이후에 열리고 매우 큰 도움이 되니 반드시 참석하여 최적의 입시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학점과 리트입니다. 1차 정량평가는 수치로 드러난 학점과 리트, 영어점수만을 평가합니다. 올해부터 학점평점이 백분위로 평가되면서, 학점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리트의 변별력이 커졌습니다. 2차 정성평가는 자기소개서와 기타 정성요소들을 평가합니다. 여기에는 학점의 ‘질’이 포함됩니다. 자기소개서에는 학부 때 중점적으로 수강한 과목들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고 특히 재수강 과목 수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3차 면접은 문제풀이 후 구술면접으로 진행됩니다.

학점 준비하기

돌이켜 볼 때, 학부생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입시준비는 좋은 학점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학점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높은 학점평점과 둘째, 전공충실도입니다. 먼저 높은 학점평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1차 정량평가에는 학점평점만 들어가기 때문에, 평점 자체가 너무 낮다면 서류에서 탈락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좋은 학점평점을 유지하는 것은 학부 내내 자신감과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리트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 학점이 낮다면 리트 고득점에 대한 압박이 생겨 오히려 리트준비에 차질이 생기기 쉽습니다. 저는 학점이 낮아 입시과정 내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둘째로는 전공충실도가 중요합니다. 로스쿨의 도입취지 중 하나가 다양한 전공지식을 가진 법조인의 양성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는 지원자

의 전공충실도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전공과목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타대 과목들을 수강하더라도 방향성 없이 마구잡이로 학점을 이수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전공필수과목들이 타 과목에 비해 난이도도 높고 학점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같은 학점평점이라도 어려운 전공과목들을 다수 이수한 성적표가 ‘교양꿀강’과 재수강들 위주로 이수한 성적표보다 높이 평가받습니다.

본교와 Y대 로스쿨 모두 정성평가에서 지원자의 학점을 출신 학부 학점 평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평가한다고 입학설명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상대적으로 학점 받기 어려운 학부로의 복/부전공을 계획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트 준비하기-학부

리트준비는 보통 졸업학년 겨울부터 시작합니다. 저 역시 12월부터 준비했고, 9개월은 넉넉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준비기간이 너무 길어



지면 지쳐버리거나 긴장이 풀어집니다. 겨울 이전까지는 학부 수업과 기타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리트에 도움이 된 학부 활동으로는 독서토론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저는 경영대 독서토론동아리에서 3년 동안 활동했는데, 여러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배경지식을 넓힐 수 있었고 독해력도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정말로 어려운 책들을 머리 싸매고 끙끙거리면서도 읽어나갔던 경험은, 리트에서 고난이도의 지문들이 출제되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원 전년도에는 당해 리트시험을 현장 응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접수능은 안 쳐준다는 말이 있듯이, 집에서 보는 리트와 현장에서 보는 리트시험의 느낌은 사뭇 다릅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친구들과 함께 강의실을 빌려서 실전 느낌의 모의고사를 치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리트 준비하기-스터디와 인강

리트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 5인~6인의 스터디를 구성합니다. 저는 좋은 스터디를 구성하는 것이 리트 준비의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터디가 있음으로 인해 입시 정보 면에서나 정서적으로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스터디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스터디는 보통 기출풀이, 사설모의고사와 인터넷강의(인강)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 중 스터디의 우선순위는 반드시 리트 기출풀이가 되어야 합니다. 인강에 너무 큰 시간을 할애하지 마시고, 최대한 많이 그리고 꼼꼼히 기출문제를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인강에서 가르쳐주는 풀이법에 의존하지 마시고, 본인이 기출문제를 풀어가면서 직접 자신만의 풀이법을 체득해야 합니다.

스터디 시간도 실전과 같이 오전 9시에 언어이해를 시작하고 11시에 추리논증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스터디에서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오전엔 모의고사, 오후엔 문제풀이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후 5시나 6시까지 스터디를 하게 되었는데, 학기 중에는 주 1회, 방학 때는 주 2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리트 기출문제를, 기출문제가 떨어진 뒤에는 의학전문대학원 언어영역 기출문제를 사설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PSAT 문제는 워낙 유형이 달라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치를 수 있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짜시길 바랍니다.

인강은 생각보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강은 사설 모의고사 공급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강의 자체보다는 인강에서 제공한 문제들을 가지고 스터디원들과 풀어보는 시간이 훨씬 더 유익했습니다. 인강 강사들의 풀이보다 스터디원들의 풀이가 더 정교하고 유익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인강에 너무 의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창](#)

많은 시간과 노력, 정성을 들여야 하지만, 해마다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있는 공모전이 있다.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실현까지, 참가자들이 한뼘 한뼘 정성스럽게 만든 프로그램은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향하고 있다. '이익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이 착한 공모전은 현재 제7회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editor. 박소희

내 손으로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공익인권활동 동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 1. 취지

예비법조인들의 공익·인권분야 활동을 장려하여 예비법조인들의 공익·인권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공익·인권 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활동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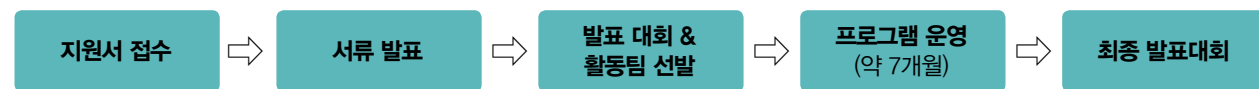
현재 진행 중인 공익활동 혹은 공익·인권분야의 새로운 활동 프로그램 (자유주제)

▶ 3. 참가자격

사법연수생 및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개인 및 최대 5명의 팀으로 응모가능)

※ 학부생, 공익단체 활동가 등과 연합하여 팀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
(단, 팀내 사법연수생 및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수가 2/3 이상이어야 함)

▶ 4. 프로세스 (올해부터 변경, 47p 참고)



▶ 5. 지원내역

- ① 최종 활동팀에는 각 팀별 300만원 내외의 활동비 지원 (프로그램 별 차등지급)
② 동천 및 bkl 공익활동위원회 변호사들이 어드바이저 변호사로 참여 예정 ※ 1회에 한해 어드바이저 변호사와 활동팀과의 미팅 비용 지원

▶ 6. 시상내역

구 분	선 발 인 원 (개인 또는 팀)	시 상 내 역
대상	1	약 300만원 상당의 장학금
최우수상	1	약 200만원 상당의 장학금
우수상	1	약 100만원 상당의 장학금
수상하지 못한 활동팀	수상팀 외	소정의 상품

Mini interview

제6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대상팀 '알바의 정석'



Q. 수상소감은?

▶ 열심히 프로그램을 기획한 만큼 수상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경쟁팀들이 우리 못지않게 참신한 주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대회에 임했기 때문에 대상을 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팀원 모두 즐겁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활동가들, 바쁜 학업일정 중에도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해주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비롯하여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Q. 팀원은 어떻게 구성했나? '알바의 정석'이라는 팀 이름에 담긴 의미는?

▶ (주소현)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만 가지고 있었는데 팀장인 주소현 원우가 제안을 했고,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서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학부 시절 청소년 관련 일을 많이 했었고, 아르바이트 임금이 체납되어 고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취지에 공감해서 참여하게 되었다.

(이하림) '알바의 정석'이라는 팀명은 청소년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청소년들이 많이 푸는 혹은 한 번쯤은 들어본

수학 교재 '수학의 정석'에서 따왔다. 또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제작한 수첩 형태의 알바 지침서 겸 다이어리 또한 '알바의 정석'이라 이름 붙였는데 이는 수학의 정석만큼이나 아르바이트의 바이블로 자리 잡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슬기)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나에게도 법은 어렵고 딱딱해 내 편이 아닐 것만 같은 큰 존재였다. 노동현장에서 직접 문제에 부딪치는 청소년들에게는 그 무게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공익·인권 활동이 법과 취약계층과의 괴리를 좁히는 데 일조하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본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뿌듯했다.

(전소현) TF로 참여 중인 이동 쉼터 노동 상담 프로그램 '알바거리'의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동 쉼터의 방문객 대부분이 중학생 청소년들이며 상담보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알바거리 로스쿨 운영위원과 논의 끝에 나를 대표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알바의 정석' 팀을 꾸리게 되었다. 3명의 팀원들이 학부 때부터 다양한 외부 활동 경험을 쌓아왔고 각자 귀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꼭 함께 팀을 이루어 활동을 하고 싶었다. 간절하게 설득을 했더니 다들 흔쾌히 참여를 해주어 지금까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Q. 동천에서 주최하는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은 어떤 대회인가?

▶ 이 대회의 가장 큰 의의는 공익인권 관련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것에서부터 프로그램을 마무리 짓는 것까지 모두 참가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다. 즉, 참가자들이 직접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기 때문에 그만큼 보람도 크다. 보고서로만 존재했던 우리의 계획을 현실화시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을 직접 만나면서 우리의 프로그램의 존재 가치를 절실하게 느끼게 됐고 보람도 그만큼 많이 느꼈다.

또한 참가주체가 로스쿨생이니만큼 기존 공익인권 활동보다는 참신하게, 대상인 인권 분야(우리 팀 같은 경우는 청소년)에는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도 본 대회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팀은 최대한 청소년의 입장에서 쉽고 재미있게 노동법을 배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다른 참가팀들도 다들 참신한 아이디어로 젊은 감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Q.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전예방형·실전형 노동법률 프로그램 활동을 기획한 배경은?

▶ 청소년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그와 관련된 법적 문제도 많아졌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단기간 아르바이트나 배달 아르바이트의 경우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통해서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법은 현실에 비해 더디게 변화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노동법률을 접해보고 법이 자신들의 든든한 보호막이 될 수 있음을 청소년이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법과 현실에 괴리가 있을 때 청소년들 스스로가 변화를 꿈꿀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Q. 기획한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가?

▶ 우리의 프로그램은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를 타임라인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 임금, 휴게시간, 해고 등을 주제로 잡아 각 주제 안에서 기본, 예제, 실전 문제를 풀도록 구성되어 있다. 기본 단계에서는 주로 o.x 퀴즈와 빙고 게임이 이뤄지고 예제단계에서는 역할극을 통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며, 실전 단계에서는 문제상황에 대한 비법률적 대처방식을 토론의 형식으로 고민해보고, 실전화된 알바 Tip 등이 제공된다.

▶ 7~8월에는 주로 교재를 기획하고 직접 제작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 8월 말부터는 자체 제작한 교재를 활동 장소인 이동 쉼터에 비치하고, 원활하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 현장에 나가 로스쿨생 활동가분들에게 교재를 가

지고 시범 교육을 하였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된 후에는 새로운 교재를 추가로 제작 비치하였고, 매번 피드백을 받아 수정사항을 교재에 반영하여 지속해서 업데이트 되도록 하였다.

교육이 이루어진 후에 이동 쉼터에 방문하는 청소년 대부분은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다 알게 되었고 피해야 할 아르바이트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도 했다.

Q.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 (주소현)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현실화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교육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예를 들어, 배달기사 아르바이트의 경우 많은 청소년이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는데, 현재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생계를 위해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위험하니 그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라”고 교육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유슬기) 아무래도 교재 제작부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까지 모두 처음 도입하는 것이다 보니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4명의 소수 인원으로서 현장의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권하는 것부터 현장의 로스쿨생 활동가에게 교재 사용법과 교육 진행법에 대한 전달을 올바르게 하여 현장이 잘 굴러가게끔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팀원들이 교대로 현장에 방문, 일주일에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현장의 문제를 점검하고, 매 뉴얼을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거쳤다. 또한 감사하게도 현장의 선생님들과 로스쿨생 활동가들의 적극적 참여로 운영의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

(전소현) 우선,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구성이 가장 어려웠다. 교재 제작에 활용된 색감, 이미지, 폰트부터 청소년

들이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신경 썼고 최신 유행어 등도 적극 활용했다. 관광버스를 개조한 이동쉼터의 특성상 참여자의 관심과 호기심 유지가 활동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보시는 분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안도했다.

Q. 대회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 대회를 준비함에 가장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진행하면서도 충분히 바뀔 수 있지만, 프로그램을 구상한 목적이나 취지 등은 끝까지 가져가야 하는 큰 그림이다. 큰 그림만 제대로 그려놓는다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해도 대응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차치하더라도 끝까지 가져갈 큰 그림을 그리는 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준비 방법이라 생각한다. 알바의 정식 기획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님께서 해 주시는 조언이 큰 그림을 확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인 것 같다.

Q. 본 대회를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 (주소현) 내가 완전히 준비되어 있을 때 비로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먹은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임을 배웠다. 준비된 상태라는 것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법 공부가 많이 부족한 지금이 현재의 내 모습이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하림) 또한, 많은 사람이 공익인권활동, 특히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노동 권익 신장을 위해 본인의 시간을 쪼개 동참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슬기) 처음에는 우리의 이 작은 활동이 청소년 노동인권이라는 분야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열의를 가지고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 걱정한 것과 달리 재미있어하는 청소년들을 보며 이러한 작은 움직임에서부터 큰 변화가 시작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크게 바꾸게 되었다.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적어도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정도는 잘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법률을 쉽게 설명하고자 하며 겪었던 과정들, 노력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자산으로 남아있다고 믿고 있다.

(전소현) 공모전은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고, 듣고, 배움으로써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팀원 간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로스쿨 운영위원장, 멘토 변호사님, 도움을 주신 전문가님들, 알바거리 1기 참여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도움을 받기만 한 셈이다. 이 활동을 통해 맺은 작은 인연 하나하나가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하다.

Q. 공모전을 준비하는 로스쿨 학우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한다면?

▶ (주소현) 처음엔 학업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있었지만, 오히려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공부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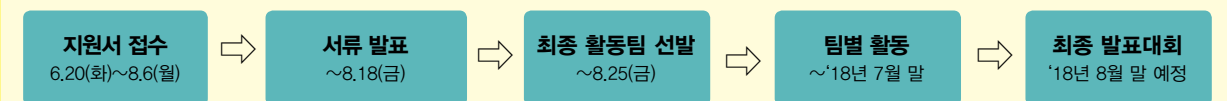
(이하림) 처음에는 잘 해낼 수 있을까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기 때문에 끝까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보람도 있고, 동기들과의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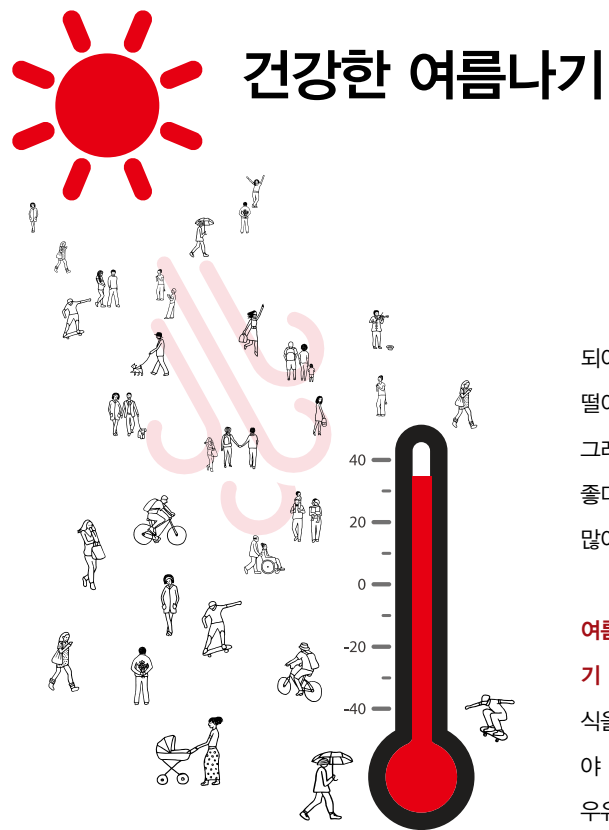
(유슬기) 대상이라는 결과물도 감사하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 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 납니다. 장담합니다!

(전소현) 팀원들과 함께 한 시간을 통해 로스쿨에서의 학업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법학 공부를 계속해 나갈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꼭 참가하시길 추천합니다!

▶ 여기서 잠깐!

제7회 동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은 기존과 다르게 1년 단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략적인 일정은 아래와 같으나,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동천 홈페이지(www.bkl.or.kr)를 참고해야 한다.





건강한 여름나기

조비룡 교수

서울의대 국민지식센터
가정의학과



되어 하루의 리듬이 깨어지기 쉬운데, 이렇게 되면 몸의 기능이 급속도로 떨어져 질병에 대한 면역력도 떨어지며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더위가 시작되면 수면시간과 식사시간은 가능한 지키는 것이 좋다. 낮더위가 시작되면 시원한 밤을 이용하여 여러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기본적인 리듬은 지키는 것이 좋다.

여름이 되면 탈수와 더위로 인해 혈액의 순환이 피부로 많이 옮겨지게 되기 때문에 소화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소화기에 무리가 되는 과식을 삼가고 가능한 규칙적인 식사시간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열대야 때문에 늦잠을 자게 되면 흔히들 야식을 먹곤 하는데, 소화가 잘 되는 우유나 과일 또는 채소를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때 과식을 하거나 칼로리가 많은 햄, 라면 등을 섭취하게 되면, 수면의 질이 더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 날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어 오전의 컨디션이 악화되는 시발점이 된다. 시원한 맥주와 청량음료도 많이 찾게 되는데, 이 둘 다 칼로리가 많아 물을 섭취하는 것이 더 좋다. 특히, 맥주의 경우는 본인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잠의 깊이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청량음료는 칼로리가 많아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하고 곧 아침식사를 하고 싶어질 수 있도록 몸의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규칙적인 수면시간과 식사 시간이다.

낮의 기온이 32도보다 올라가거나 한밤중의 온도가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기 시작하면, 더위에 대한 방어를 시작하여야 한다. 자외선이 강한 낮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외출을 삼가고, 외부에서의 활동을 다음으로 미룬다. 옷은 헐렁하게 입으며,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땀을 많이 흘리게 될 때는 스포츠 음료가 도움이 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평소 충분한 소금을 섭취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따로 소금을 섭취할 필요는 없다. 정신적으로는 '이열치열'의 자세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때는 뜨거운 음식이나 과식은 가능한 피해야한다.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병을 가지

고 있는 사람이나 노약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하며, 가능하면 실내온도를 26도 전후로 맞추어주는 것이 좋다(이런 실내온도에서는 이열치열이 가능하다) 하루 종일 하는 일없이 피곤하고, 정신집중이 되지 않으며, 소화장애가 있고, 두통과 복통이 동반하기도 하는 흔히 말하는 '더위를 먹었을 경우'는 시원한 곳에서 편히 쉬게 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게 하면 수 시간에서 수 일 이내 서서히 회복이 된다.

여름이 되면 꼭 거론되는 것이 '냉방병'인데, 원래 이는 에어컨의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세균들이 냉각수에 성장하게 되고 이것들이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면서 발생하는 병을 일컫는다. 최근 들어 빌딩의 냉각수나 에어컨의 관리가 잘 되면서 이제는 이런 경우가 거의 보고되지 않지만, 에어컨의 내부 세척과 관리는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또 하나의 냉방병은 실내 냉방을 위해 환기를 차단하고, 실내온도와 실외온도의 차이를 크게 유지하면서 우리 자율신경계의 부조증세가 오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외부와의 온도 차이를 5도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한번씩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 갑자기 밖에서 외출하였다 들어오면 더위를 심하게 느끼게 되는데, 이때만 잠깐 선풍기 바람을 추가로 쐬거나, 에어컨 강도를 올렸다가 곧 내리도록 한다.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면 실내의 찬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실내에 담배를 피거나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이 있게 되면 이의 피해가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때는 가능한 실내에서 금연하도록 하고, 오염물질이 있거나 누군가 흡연을 하였을 경우는 작은 환기가 필요하다.

외출이나 물놀이 등으로 햇볕에 맨살이 노출될 때는 화상이나 피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도록 하는데, 사용법을 잘 알아야 한다. 자외

선 차단제의 효과는 SPF 수치로 표시하는데, 수치가 올라갈수록 효과가 좋고 오래 가지만, 그만큼 피부 알려지나 부작용을 나타낼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30 전후면 무난하다.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와 반응을 하여야 하므로 노출되기 약 30분전에 발라야 하고, 땀이 나거나 물에 노출될 경우는 약 2시간 간격으로 다시 발라 주어야한다. 자외선 차단제는 눈에 해롭기 때문에 특히 자외선 차단제를 포함한 땀이 눈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여름이 되면 세균이 빨리 번식하여 식중독이 증가하므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음식은 가능한 빨리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여름에는 우유같은 종류는 냉장고 밖에서는 짧게는 한시간만에도 부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익히거나 끓여서 먹도록 하는데, 이미 세균이 증식하여 독소를 생성한 경우는 아무리 익혀도 그 독소에 의한 식중독을 막을 수가 없다.

여름철 건강문제의 마지막은 바로 곤충, 특히 모기로 인한 피부 문제와 질병이다. 어린아이들이 특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더 자주 물리는데다, 아이들은 피부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자꾸 긁어서 더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산이나 들로 놀러갔을 경우, 야외에서는 모기와 곤충을 쫓아주는 스프레이가 도움이 되고, 가능한 긴 옷을 입히도록 한다. 저녁이나 새벽에 모기의 활동이 더 빈번하므로 이때는 가능한 외출을 삼가게 하고, 꼭 모기향과 모기장을 같이 사용하도록 한다.

여름에 흔한 질병과 문제들을 열거하다보니, 꼭 여름이 살기 힘든 계절인 듯이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여름은 휴가의 계절이고, 물놀이의 계절로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다. 이번 주말엔 에어컨의 필터도 다시 한 번 청소하고, 휴가 나들이를 위해 모기를 쫓아주는 스프레이와 모기향, 모기장도 필요한 만큼 장만하고, 휴가기간이 지났다면 선크림 크림을 다시 하나 사도록 하자. 조금 더 여유를 내어 냉장고의 필요 없는 음식은 없애버리고, 필요한 음식이 들어갈 공간도 마련해 보자. 오늘부터 규칙적인 수면과 균형잡힌 식생활을 시작한다면 더욱더 완벽하다. **창**

저자 소개

- 서울의대 졸업 ●전공 : 건강증진, 건강노화
- 현 서울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 국민건강지식센터 장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가시나무 목걸이를 하고

벌새와 함께 한

자화상

1940

프리다 칼로
Frida Kahlo

Self-Portrait with Thorn Necklace and Hummingbird



요즘 날씨가 부쩍 더워졌습니다. 밤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지만 낮의 태양은 강렬합니다. 저는 이렇게 뜨거워지면 남미의 열하에서 질곡의 삶을 살다 간 어느 여인이 생각납니다.

이 여인, 바로 프리다칼로는 생전에는 지금처럼 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의 아내 정도로 알려져 있다가, 80년대 페미니즘이 유행하

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지요. 프리다 칼로는 죽기 1년 전이 되어서야 자신의 나라에서 첫 개인전을 열 수 있었습니다.

후자는 그녀를 마그리트나 달리처럼 초현실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생전 본인은 페미니스트나 초현실주의자, 현대미술가라고 불리기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은 단지 남미의 설화와 전통문화를 차용했을 뿐이고, 자신의 삶 속에서 느낀 것들을 그대로 화폭에 담은 것뿐이라 말



생전의 프리다칼로

했습니다.

다듬지 않은 짙은 눈썹과 콧수염, 프리다칼로는 그림만으로는 동양적 미인상에는 부합하지 않죠. 그런데 사실 실물은 아주 아름다웠고 정말 이지 뜨거운 남미의 미녀다운 짙은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에 짙은 눈썹과 콧수염, 머리에 올린 꽃, 그리고 화려한 전통문양 옷과 장신구들, 말아 올린 머리. 이것은 프리다 칼로의 전형적인 스타일이고, 상당히 매력적이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잔인하고 직접적인 표현, 눈썹이 붙어있는 여성, 페미니스트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프리다칼로의 인생을 우리는 대개 잘 알지 못합니다. 조금 안다면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 침대에 누워서 생활했다 정도지요. 그러나 그녀가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 생을 버티다 갔는지 더 알게 된다면 그 그림이 결코 잔인하거나 과한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고통의 전부를 담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의 그림인 '가시나무 목걸이를 하고 벌새와 함께 한 자화상(Self-Portrait with Thorn Necklace and Hummingbird)'을 보시면, 정 중앙에 트레이드마크인 서로 붙은 짙은 눈썹과 콧수염이 보이는 프리다칼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고양이와 왼쪽에는 거미원숭이가 있고, 칼로가 한 가시목걸이에는 죽은 벌새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질적인 대상들이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 같고, 칼로의 눈빛은 공허합니다. 검은 고양이와 원숭이는 칼로의 너무나 외로운 고독감을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화려한 나비장식으로 자신의 마음속 형형한 의지만큼은 빛내고 있습니다.

그림은 화려하면서 쓸쓸하지 않나요? 1926년에서 1954년 사이에 프리다 칼로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포함한 자신의 개인사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이 작품은 특히 칼로의 인생에서 가장 슬픈 때였던 1940년, 그리고 그녀의 그림세계가 가장 활발했던 때의 작품입니다. 그림 속 모든 대상은 다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거미원숭이는 다른 원숭이보다 더 야생성이 강한 동물이면서도 아기를 잃은 프리다칼로의 애뜻함이 녹아나오는 대상입니다. 고양이 역시 상대방의 위협에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호전성이 묻어나고, 벌새는 칼로의 눈썹과 닮았습니다. 칼로의 조국 멕시코에서 사랑의 행운을 가져오는 부적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칼로는 다시 한 번 살해당한 자신의 사랑을 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 혁명(1910~1921)이 일어나기 3년 전, 멕시코 코요아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기예르모 칼로는 헝가리게 독일 출신 유대인 사진사였고 어머니 마틸드 칼데론은 원주민인 메스티조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엘로서 박사에게 보낸 자화상(1940)

저자소개



김별다비

경감, 변호사, 큐레이터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미술을 전공하고 췌대박물관 큐레이터, 아르코 미술관 큐레이터로 근무했다. 제2회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엘지전자 개인정보 compliance task에서 개인정보 보호업무로 3년여 근무하다 예술인의 정의 구현을 위해 수사에 뜻을 두고 2기 경감 특채로 선발됐다. 3회 대법원 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 형사변론부문 전국우승을 한 바 있다. 대안공간 정다방, 리각 미술관,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미술법을 강의한 적이 있고, 월간 BizArt지와 한국박물관협회지에 미술법 칼럼을 쓰고 있다.

네 딸 중 셋째인 그녀가 늘 평화롭게 살라는 의미에서 독일어 'Frieden(평화)'에서 따온 'Frida'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섯 살이 되던 해 프리다는 소아마비로 인해 한쪽 다리가 짧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 치마만 입었다고 합니다. 그림에도 어린 프리다칼로는 영특하여 의사나 여행가가 되고 싶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멕시코 최고 명문인 에스쿠엘라 국립예비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 첫사랑 '알레한드로'를 만났지요. 알레한드로와 전차를 타고 가던 어느날 큰 교통사고를 당해 쇠봉이 온몸을 관통하는 사고를 당했고, 대퇴골, 갈비뼈, 다리 등 수십 군데에 골절이 생겼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평생 시달려야 했습니다. 또한 알레한드로와 헤어지게 되었지요.

"하지만 나는 죽지 않았다. 살고 싶었고 김스를 하고 누워있는 것이 끔찍하게 지루해서 무엇이든 해보기로 하였다. 나의 그림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프리다칼로)

그녀는 그 고통을 그림으로 이겨냈습니다. 독학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전신 석고 김스를 하고 꼼짝없이 누워있다 머리맡의 거울을 보며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프리다칼로를 구원한 그림이 또 다른 고통을 불러왔다고 한다면 생의 아이러니일까요. 프리다는 그림을 그리다 남미 벽화운동주의로 잘 알려진 디에고 리베라를 만나 결혼을 하지만 사실 디에고는 여성편력이 화려한 남성이었고, 결국 프리다의 여동생 크리스티나하고 바람이 나고 맙니다. (이 때 그린 그림이 두 명의 프리다(A Few Little Pricks) 입니다. 이미지는 지면에 나타내기 적절치 않아 생략합니다.)

이 시기에 프리다는 남편과의 갈등 등으로 자신이 사랑을 쏟을 아이를 간절히 원했으나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계속 유산이 되고 맙니다. 그녀의 그림에 나타나는 다양한 아이 관련 이미지들이 그러한 상처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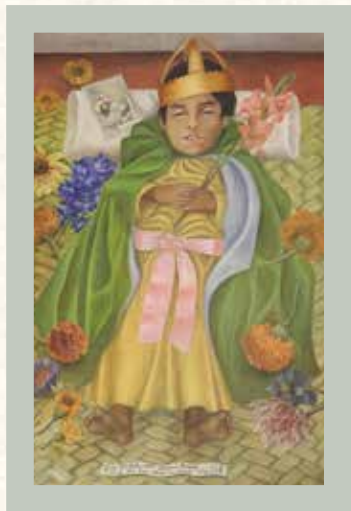
"일생 동안 나는 심각한 사고를 두 번 당했다. 하나는 16살 때 나를 부스러뜨린 전차이다. 두 번째 사고는 바로 디에고다. 두 사고를 비교하면 디에고가 더 끔찍했다." (프리다칼로)



앵무새와 나(1941)



그림을 그리는 프리다칼로를 도와주고 있는 디마 로사



세 살에 죽은 디마 로사 (1937)

프리다 칼로는 처음 그림을 시작했을 때부터 마칠 때까지 수많은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프리다칼로의 자화상은 일관되게 고통을 주제로 합니다. 육체적 고통, 아이를 잃은 고통, 남편과 여동생의 배신으로부터 오는 고통.

"나는 항상 혼자였고, 그래서 내가 가장 잘 아는 주제인 자화상을 그린다." (프리다칼로)

〈가시나무 목걸이를 하고 별새와 함께 한 자화상〉 같이 〈엘로서 박사에게 보낸 자화상〉 등 이후에 나타난 자화상들은 바로 프리다 칼로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잘 나타난 연작들입니다. 특히 오늘의 작품처럼 '원숭이'가 나오는 자화상이 많은데, 이는 그녀가 아이를 잃은 슬픔과 남편의 외도로 인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원숭이, 고양이, 토끼, 앵무새 등을 기르며 그들에게서 위로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림의 원숭이들은 정말 작은 아이들 같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프리다는 디에고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양가감정이 있었다고 하지요. 앵무새와 원숭이, 개, 등을 애완 동물로 기르면서 매일 리베라를 위해 꽃다발과 과일, 점심을 세팅하였습니다. 그녀의 앵무새 중 '보니토'라는 앵무새는 항상 식사 중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재롱을 떨었다고 하네요. 프리다칼로가 애완 원숭이를 안고 있을 때가 많았는데, 원숭이는 남편 리베라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카이미토 드 구야발'이라는 이름의 거미원숭이는 리베라가 칼로를 생각해서 데려왔다고 합니다.

프리다칼로가 애착을 두었던 대상 중에 이웃집에 사는 꼬마 디마 로사가 있습니다. 그녀의 그림을 도와주었지요. 그러나 세 살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여하간 프리다는 고통의 시간과 외로움을 그림으로 훌륭하게 승화했고, 이 즈음 여동생과 디에고와의 불륜을 알게 되어 그와 결별하고 유럽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파리의 르누와 콜 갤러리에서 열린 멕시코

참고자료

주간조선 2013.4.1. 유경희, 칼로의 정원은 동물이다

중앙일보 코리아데일리 샌프란시스코, 2014.1.14. 정유석, 프리다 칼로의 죽음

한겨레21, 2003.10.23. 김경의 스타일 앤 더 시티, 프리다 칼로의 강렬한 유혹

바람구두의 문화망명지, 사람으로 본 20세기 문화예술사

<http://windshoes.new21.org/art-frida01.htm>

패션N, 유재부, 2015.5.20.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주는 프리다칼로의 영향력 통치는 계속된다.

코전에 출품하여 피카소(Pablo Ruizy Pacasso),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뒤샹(Marcel Duchamp) 등으로부터 초현실주의 화가로 인정 받았고, 그중에서도 칸딘스키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전시장에서 감격의 포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들의 그런 반응에 강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자신의 작품 세계를 유럽의 모더니즘에 연결하려는 그들의 연사에 반감을 표시하고 자신의 뿌리는 멕시코적인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당시 프리다의 애인이었던 니콜라스 머레이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초현실주의자들에게 느낀 실망감에게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멍청이들"의 어리석은 수다와 현학적 토론이라고 비판하며 "무엇 때문에 이 무능력자들이 히틀러나 무솔리니 일당을 불러들이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고 격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꿈을 그린 적이 아니다."

나는 나의 현실을 그렸다"(프리다칼로)

그런데 프리다의 일생을 짚어보다 보니 프리다는 디에라를 불같이 증오했기도 하지만 또한 불같이 사랑하기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디에라도 마찬가지였지 않나 싶습니다. 프리다가 남편의 여동생과의 불륜을 목도하고 유럽으로 떠난 것이지만 다른 남성과 염문에 휩싸이자 리베라는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다도 그러한 디에고를 다시 그리워했는지 디에고는 프리다를 찾아와 다시 사랑을 고백하였고 둘은 서로의 삶을 상관하지 않고 공동경제 생활과 성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재결합하기로 합니다.

1954년, 47세의 나이로 그녀가 사망했을 때 그녀의 남편 디에고 리베라는 그녀의 옷이 보관되어 있는 방을 폐쇄했습니다. **창**

빙점

미우라 아야코



저자소개



박상흠 변호사
동아대학교 법무팀장

동아대 로스쿨 재학시절 편집장을 맡은 일을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한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신체특성 때문에 변호사로서의 영업은 쟁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글쓰는 일과 쉽게 설명하는 법률이야기를 일반인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가장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장차 나의 꿈은 법률 이야기꾼이 되는 것이다.

쓰치구치 병원장의 아내 나쓰에는 남편 게이조가 출장간 틈을 타 자신의 방을 찾아온 고용의사 무라이와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진다. 젊고 키 큰 의사 무라이는 남편과 달리 친절하고 매력이 넘쳤다. 피아노 건반 위에 도미술을 연신 누르는 나쓰에의 볼에 무라이가 스치듯 가벼운 키스를 했다. 이 짧은 일이 벌어지는 동안 루리코는 유괴되어 홋카이도의 모범림 숲속 비에이 강에서 살해된다.

집 근처 우체국장이 딸의 죽음을 알려줬다. 루리코는 목이 졸려 살해됐다. 살해범은 사이시 쓰치오. 일주일 후 그는 유치장에서 목매달아 자살한다. 중노동자 사이시는 아내가 여아를 낳고 죽은 후 혼자 갓난아기를 돌보았다. 아기 울음에 지쳐 집밖으로 나와 강으로 향하던 그가 만난 소녀가 바로 루리코였다. 사이시를 따라 강가로 간 루리코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목을 졸라 죽였던 것이다. 루리코 에겐 불운이었다.

응접실에 놓인 7개의 담배꽂초를 보며 게이조는 무라이와 나쓰에의 불륜을 상상한다. 그 시간 루리코는 살해됐다. 아내에게 따져 묻고 싶었으나 참았다.

그러나 나쓰에는 루리코가 살해된 후에도 무라이와 만났고, 그녀의 목덜미에는 보랏빛 멍 자국이 새겨져 있었다. 게이조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다. 이후 불임수술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쓰에가 여자아이를 입양하자는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는 유아원을 운영하는 절친 다카키에게 생후 3개월 된 사이시의 딸을 부탁했다. 나쓰에는 아기를 보고 기뻐했다. 이름은 태양을 뜻하는 요코(陽子)로 지었다. 게이조가 요코를 입양하는 목적은 자신을 배신한 아내를 괴롭히기 위해서였다. 후일 요코가 살인자의 딸인 사실을 알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가 보기에 루리코가 죽은 것은 무라이와 나쓰에 때문이었다. 다카키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삶의 신조로 삼았던 친구 게이조의 인격을 믿었다. 그러나 게이조는 살인자를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내를 용서하지 못해 입양을 택한 것이다.

나쓰에는 요코를 지극정성으로 키웠다. 자신이 직접 낳은 아기로 보이기 위해 요코를 데려오기 전 형집으로 배를 부풀렸다. 그리고 아사히카와 집에서 샷포르로 달려가 요코와 2달간 여관에 머물렀다. 기어이 입양신고가 아닌 출생신고를 했다.

루리코는 목이 졸려 살해됐다. 살해범은 사이시 쓰치오.

일주일 후 그는 유치장에서 목매달아 자살한다.

중노동자 사이시는 아내가 여아를 낳고 죽은 후 혼자 갓난아기를 돌보았다.

나쓰에가 한 연출은 요코를 자기가 낳은 아기로 만들어버렸다. 요코는 영리했다. 3살에 글을 읽기 시작했다. 상냥하고 인내심이 많은 아이였다. 두 부부의 아들 도루도 요코를 사랑했고 심지어 커서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하다가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기도 한다. 그러나 게이조는 요코가 살인자의 딸이라는 시선을 지울 수 없었기에 냉대와 무관심으로 대했다.

비밀의 시간 7년이 흘렀다. 나쓰에가 남편의 서재에서 발견한 한통의 편지. 그가 다카키에게 보낼 편지 내용은 이랬다. ‘요코는 루리코를 살해한 범인의 딸이라는 것, 7년이 지난 지금도 요코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 루리코가 살해당한 날 나쓰에와 무라이가 단둘이 한방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억누르지 못해 살인자의 딸을 나쓰에의 품에 안겨줬다는 것’ 등이었다. 요코의 신분을 알게 된 나쓰에는 남편에 대한 심한 배신감과 친딸 루리코를 죽인 살인범의 자식인 요코에 대한 애증이 뒤섞이게 된다. 편지를 본 그날 나쓰에는 집으로 돌아온 요코의 목을 조르고 거품을 토하게 한다. 요코는 갑자기 변한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없었지만, 어렴풋이 자신이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모든 상황을 묵묵히 이겨낸다. 급식비를 주지않는 엄마를 이해할 수 없지만 키워 준 은혜에 감사했다.

해난사고는 게이조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다. 선박에서 유일하게 구사일생한 그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요코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 서점을 찾아간 그에게 성경책 마태복음 1장이 눈에 띈다. 동거 전 임신한 마리아를 보고도 파혼을 하지 않는 요셉의 모습이 자신을 부끄럽게 했다. 태풍 중에도 자기 구명조끼를 처녀에게 내어주는 선교사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돌아온 그는 요코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요코와 줄넘기를 하고 종이접기도 했다.

그러나 나쓰에는 점점 더 냉정해졌다. 급식비를 달라는 요코에게 번번이 핑계를 대며 미뤘다. 요코는 우유배달을 시작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40병들이를 배달했다. 폭설이 쏟아지는 날에도 눈보라 속을 헤치며 우유보급소로 갔다. 하지만 잠시 잠든 사이 자신이 입양아일지 모른다는 주인아주머니의 말을 듣고는 배달을 중단했다. 출생의 비밀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요코의 오빠 도루. 친오빠처럼 요코를 돌보던 그는 요코의 출생의 비밀을 모두 알고도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요코의 유일한 지킴이였다. 도루가 대학생이 되어 집으로 데려온 친구 기다하라는 요코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나쓰에는 이를 용납할 수 없었다. 나쓰에는 모든 남성이 자신을 아름답게 여겨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견디지 못했다. 그녀는 아들의 친구마저도 자신을 이성으로 받아주기를 기대하는 이기적인 여성이다. 요코와 기다하라 사이에 애정의 변주곡이 전개됐고, 두 사람이 결혼의 문을 두드리려는 찰나에 나쓰에는 기다하라에게 요코의 비밀을 공개한다. ‘요코는 루리코를 살인한 사이시의 딸’이라는 나쓰에의 말을 들은 요코는 충격에 빠졌다.

살인자의 딸인 자신에게

범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에 의지할 땅은

없어졌다.

유서의 내용대로 요코의

마음을 얼어붙게 한 빙점은

“너는 죄인의 자식이다”라는

데 있었다.

양부모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녀는 자신의 핏속을 흐르는

죄를 분명히 ‘용서한다’고

말해주는 권위 있는

존재를 만나기를 바란다는

말로 끝을 맺는다.

요코. 생에 뜨거운 의지를 갖고 살아오던 그녀는 자살을 감행한다. 그녀가 남긴 유서에는 지난 짧은 18년 동안의 삶이 들어있었다. 4학년 때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된 것, 답지를 백지로 바꾼 엄마의 심술에도 곳곳이 버텼던 자신이 루리코를 살해한 사이시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생의 의지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백했다. 그럼에도 자신을 먹이고 입혀줬던 양부모에게 감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살인자의 딸인 자신에게 범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에 의지할 땅은 없어졌다. 유서의 내용대로 요코의 마음을 얼어붙게 한 빙점은 “너는 죄인의 자식이다”라는 데 있었다. 양부모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녀는 자신의 핏속을 흐르는 죄를 분명히 ‘용서한다’고 말해주는 권위 있는 존재를 만나기를 바란다는 말로 끝을 맺는다. 그리고 요코는 루리코가 죽은 모범림 비에이 강가 앞에서 자살을 결행한다.

“요코는 눈위에 앉았다 아침 햇살에 눈이 반짝여 옅은 분홍빛을 띠고 있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눈 속에서 죽을 수 있구나.’ 요코는 눈을 꼭꼭 문쳐서 강물에 적셨다. 그것을 입에 넣자마자 칼모틴을 삼켰다. 몇 번이나 눈을 문쳐 강물에 적서서 는 입에 넣은 다음 또 약을 삼키고 했다.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면서 죽게 될까.’ 만일 괴로움을 당해 죄가 없어질 수 있다면 아무리 괴로워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면서 요코는 눈 위에 드러누웠다.” (빙점 중에서)

요코가 응급실로 후송되고 유아원장 다카키는 요코가 사이시의 딸이 아니라고 밝힌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 게이조라면 범죄자의 자식을 맡길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누구라도 입양할 자격이 된다는 신뢰가 있었다며, 사실 요코는 대학생과 하숙집 아주머니가 간통으로 낳은 아이였다고 알려준다. 눈물을 쏟으며 용서를 구하는 나쓰에, 요코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게이조. 소설은 요코가 소생될 것을 암시하는 장면으로 마무리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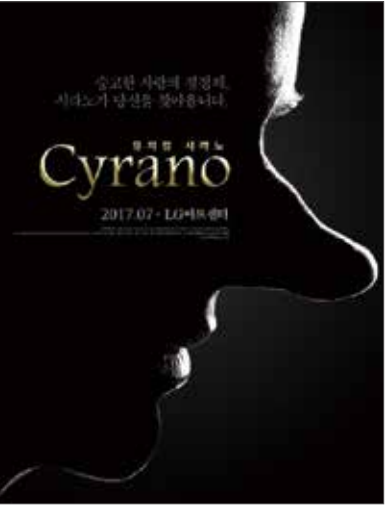
氷 點

물이 얼어붙기 시작하는 온도 빙점. 소설 〈빙점〉은 인간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사랑과 증오, 복수와 용서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려준다. 소설은 인간의 빙점에 존재하는 ‘원죄 의식’과 함께 ‘인간은 어디까지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가’라는 윤리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

빙점 氷點 (미우라 아야코)

1964년 일본 〈아사히 신문〉. 1천만엔 현상 소설 공모에 당선됨으로써 당시의 일본 문단에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의사인 게이조와 그의 아내 나쓰에는 어린 딸 루리코가 어느 날 피살된 채로 발견되자, 딸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범인의 딸인 요코를 양녀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주인공 요코는 성장하여 자신이 살인범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죄를 깊이 느끼고 절망한 나머지 자살을 꾀하여 혼수상태에 빠진다. 저자 미우라 아야코는 원죄에 관한 인간의 내면 의식을 훌륭하게 소화 해냈다.

햄릿, 돈키호테, 파우스트 같은 작품들이 시대를 초월하여 사랑받는 고전(古典)이 된 까닭은 아마 영원성을 지닌 위대한 걸작이기 때문일 것이다.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지지만, 고전은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전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이유도 어쩌면 그곳에 있지 않을까?



공연장소 LG아트센터
공연기간 2017.07.07(금) ~ 2017.10.08(일)
티켓가격 VIP석_14만원, R석_12만원, S석_8만원
홈페이지 www.lgart.com/

송고한 사랑의 결정체 뮤지컬 시라노

영국에 〈햄릿〉, 스페인에 〈돈키호테〉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시라노 드 베르주 라크〉가 있다! 프랑스의 국민문학을 넘어 전 세계에서 수 많은 영화, 드라마, 오페라, 연극을 탄생시킨 원작이 국내에서 뮤지컬 〈시라노〉로 제작돼 무대에 오른다. 원작의 탄탄한 스토리와 캐릭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으며, 작품 고유의 매력에 새로운 재미를 더해 재탄생된 뮤지컬 〈시라노〉는 데뷔 20주년을 맞이한 배우 류정환의 프로듀서 데뷔작이기도 하다. 세 남녀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전하는 감동에 홍광호, 김동완, 최현주, 린아 등 매력이 넘치는 배우들이 합류했다.

Musical

더 매혹적이게, 보다 관능적으로 아디오스, 피아졸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시작한 탱고에 클래식과 재즈를 접목하여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누에보탱고의 창시자, 아스토르 피아졸라. 이번 공연에서는 일본 최고의 탱고밴드라 불리며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인정받은 누에보 탱고의 계승자, 쿠아트르시엔토스를 통해 부활하는 'Libertango', 'Adios, Nonino' 등 주옥같은 명곡들을 만나볼 수 있다. 라이브 연주와 함께 아르헨티나 탱고댄서들의 무대가 함께 진행돼 눈과 귀가 즐거운 관능적인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연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티켓가격 R석_7만 5천원, S석_5만 5천원
공연일시 2017.07.23.(일) 17:00
홈페이지 http://stompmusic.tistor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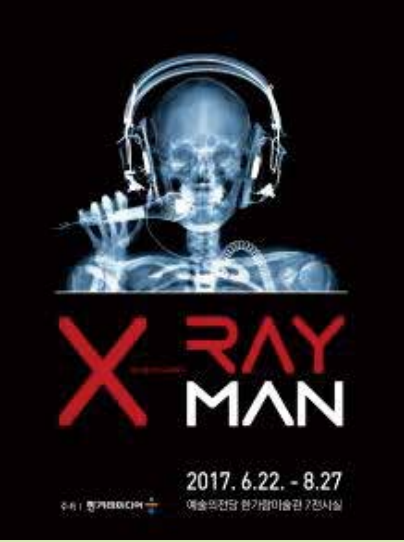


Performance

Exhibition

X-Ray Man 닉 베세이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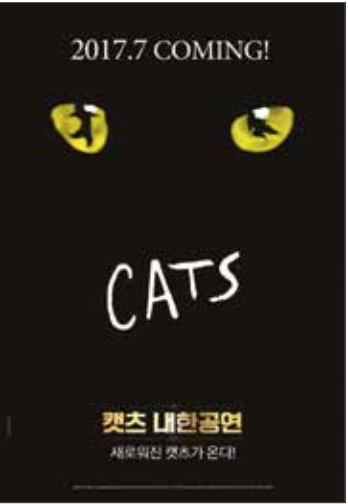
지금으로부터 약 120여년 전 독일의 물리학자 빌헬름 뢰트겐(Wilhelm Roentgen, 1845~1923)이 우연히 발견한 엑스레이는 과학과 의학의 발전을 이끌었으며, 근래에는 예술분야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장르인 엑스레이 아트는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예술과 상업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아티스트들이 실험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번 전시의 주인공인 닉 베세이(Nick Veasey)는 20여년에 걸쳐 작은 곤충부터 식물 그리고 거대한 보잉 777에 이르는 다양한 오브제를 촬영해 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엑스레이 아티스트로 손꼽힌다. 따라서 이번 전시는 닉 베세이의 작품세계를 국내 최초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자, 동시에 우리가 현상만 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본질까지 생각하는 사람인지 고찰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연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7전시실
공연기간 2017.06.22(목) ~ 2017.08.27(일)
티켓가격 1만원
홈페이지 http://www.sacticket.co.kr

전 세계인들의 뮤지컬 뮤지컬 '캣츠' 내한공연

T.S 엘리엇의 시를 바탕으로 환상적인 군무와 세계적인 명곡 'Memory'를 포함한 아름다운 음악으로 사랑받는 세계적인 클래식 명작 〈캣츠〉. 〈캣츠〉는 뮤지컬의 거장 앤드루 로이드 웨버와 최고의 제작자 카메론 매킨토시가 콤비를 이루어 탄생시킨 작품이다. 1981년 5월 11일 첫 공연 이후, 전 세계 30개 국가에서 9천 회 이상 공연되었으며 7천 3백만명 이상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매년 흥행 신화를 이어왔던 공연인 만큼 국내에서도 오리지널 프로덕션과의 협업 하에 새롭게 선보이는 〈캣츠〉에 대한 기대가 높다. 오는 7월 국립극장에서 막을 올리는 〈캣츠〉 내한공연은 질리언 린의 안무에 변화를 추가해 더 역동적이고 파워풀한 군무와, 각 고양이 캐릭터 별로 의상의 색감이나 패턴, 헤어스타일 등이 업그레이드되어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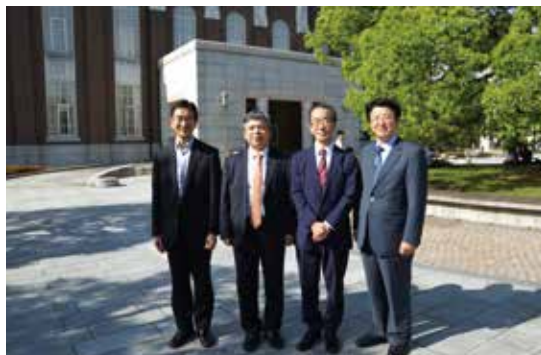
공연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공연기간 2017.07.11(화) ~ 2017.09.10(일)
티켓가격 VIP석_15만원, R석_12만원, S석_9만원
홈페이지 www.ntok.go.kr/

Musical

LAW SCHOOL NEWS

법학전문대학원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지난 6월 9일(금) 일본 교토대학 법과대학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업무담당자 워크숍이 개최됐다. 법전원협의회 측에서는 이형규 이사장을 비롯해 전국 25개 로스쿨의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교토대학 법과대학원 측에서는 시오미 준 교수(형법), 하시모토 요시유키 교수(민법)가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나라간 정보교환을 통한 상호협력을 위해 개최된 것으로 일본 로스쿨에 대한 평가, 장학금 지급 및 제도, 일본 변호사시험 합격률 및 시험 장소 등에 대해 소개하고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2017년도 제3차,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 워크숍 진행

지난 7월 4일(화)부터 7월 7일(금)까지 2017년도 제3차,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 워크숍이 개최됐다. 협의회에서는 문제의 다양성을 위해 25개교 교수진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출제위원을 구성하였다. 서태경 총괄위원장(한양대)을 중심으로 이원우 교수(서울대/공법), 민영성 교수(부산대/형사법), 송오식 교수(전남대/민사법), 이희성 교수(원광대/선택과목)가 영역위원장을 맡았으며, 총 85명의 교수진이 참여했다.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마감 임박



원서접수: 2017.7.4.(화) 09:00 ~ 2017.7.13.(목) 18:00

접수방법: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http://www.leet.or.kr>)

시험일시: 2017.8.27.(일) 09:00 ~ 16:00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마지막날은 18시까지)
- 기간 종료 후에는 시스템상 추가 접수 절대 불가

※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에 게시

<http://www.leet.or.kr>

BOOK



저 자: 세기 히로시
출판사: 사과나무
가 격: 19,000원
판매처: 교보문고, yes24 등
인터넷 서점 및 오프라인 서점

사법이 변하면 사회가 변한다 법정에 들어서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법정에 들어서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의 저자 세기 히로시는 33년 경력 엘리트 판사 출신으로 전작(前作) 〈절망의 재판소〉를 통해 자신이 몸담았던 일본 사법부의 치부를 낱알이 밝혀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다. 그 후속작인 이 책에서는 재판관에 의해 진행되는 암울한 재판 현실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강력한 사법개혁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일본의 최고재판소 사무총장(우리나라의 법원행정처)이 법관의 독립성을 무시한 채 인사권을 무기로 상명하달로써 재판관을 통제하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 법관들이라면 차마 쓰지 못했을 이 책의 내용이 우리나라 사법개혁에 시금석(試金石)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헌법의 약속

〈헌법의 약속〉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에드윈 캐머런의 이야기이다. 에드윈 캐머런은 가난했지만 백인이었기에 고등교육의 기회가 있었고, 교육을 통해 유능한 인권변호사로 활약했다. 한편 자신이 게이임을 인정하고 HIV 감염인임을 공개할 용기를 얻어, 소수자를 위한 싸움에 기꺼이 나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었다. 백인 체제의 수혜자이자, 성 소수자와 HIV 감염인이라는 복합적 정체성 속에서 고뇌하는 개인의 모습, 나아가 극적인 남아공의 민주화 과정에서 '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책을 좀 더 보편적인 이야기로 만든다. 1994년 한국과 마찬가지로 '타협에 의한 민주화'의 경로를 밟았던 남아공의 사례는 구세력과 공존하면서 민주화 되는 기나긴 과정에서 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지점들을 던진다.

저 자: 에드윈 캐머런 **출판사:** 후마니타스
가 격: 18,000원 **판매처:** 교보문고, yes24 등 인터넷 서점 및 오프라인 서점



제17회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 논문주제 : 1) 해양 관련 기술혁신과 UN 해양법협약 체계의 변화 가능성
2)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참가신청 : 두 개 주제 중에서 하나를 택해 학회 홈페이지(www.ksil.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학회 이메일로 제출
- 접수기간 : 2017년 7월 7일(금) ~ 2017년 7월 21일(금)
- 논문마감 : 2017년 9월 1일(금)
- 최종결선 : 2017년 11월 중
- 최종발표 : 2017년 11월 중
- 논문분량 : 각주 포함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A4 10pt 20매 이내)

시상내역 :	최우수상	외교부장관 표창 및 부상 (2018년도 네덜란드 헤이그아카데미 국제공법(또는 사법)과정 (3주) 수감지원)
	우 수 상	대한국제법학회장 표창 및 부상
	장 려 상	대한국제법학회장 표창 및 부상

※입상자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2018년 외교부 주관 행사 참여 기회 제공 예정

대회주최 : 외교부, 대한국제법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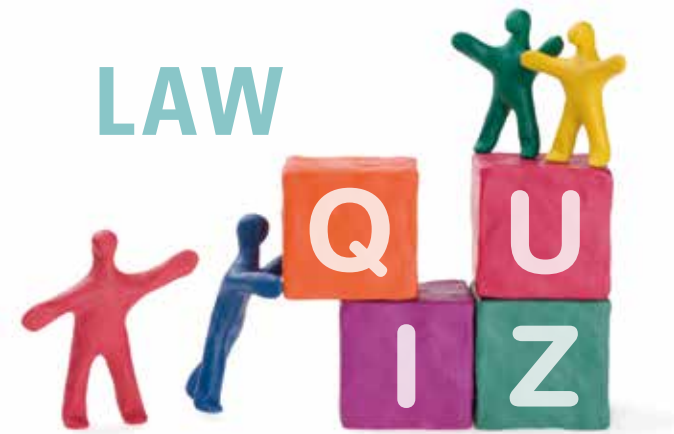
제2회 한국민사법학회 대학원생 논문경연대회

- 논문주제 : 자유주제(우리나라 민사법학과 관련된 주제 - 우리 민법전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다루는
논문 외에도, 민사부속법령/민사절차법과 관련된 주제도 가능함)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논문마감 : 2017년 8월 15일(화) 오후 6시
- 논문경연 : 2017년 9월 30일(토) 오후 2시 한양대학교
- 발표 및 시상 : 2017년 10월 21일(토) 오후 6시 국민대학교

시상내역 :	최우수상	상장과 상금 100만원
	우 수 상	상장과 상금 50만원

※본학회 학술지 <민사법학> 게재 - 편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경우

문 의 : 교육이사 김형석 교수(서울대) hskim46@snu.ac.kr / 02-880-9066



※ 본 문항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허락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2차적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 문항 출처: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선택형

1. 유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급박한 사유에 관한 유언자의 주관적 입장을 고려한다면,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라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된다.
- ②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다.
- ③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지만 다른 기재에 의하여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년 · 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어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는 자필유언증서도 피상속인에 의하여 작성된 다른 유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
- 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 · 유골을 매장할 장소를 지정한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제사주재자는 유언에 구속되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2. 물상보증인과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는 경매인(競買人)이 될 수 있다.
- ②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그 부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 ③ 물상보증인이 부담보채무의 시효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채권자가 부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응소행위는 부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
- ④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동저당을 설정한 후 제3자가 채무자 소유의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채무를 변제한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공동저당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 ⑤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물을 매수한 제3취득자가 자신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하였을 때에는 채무자 이외에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도 출재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험금액 및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금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최고한도액이다.
- ② 보험가액은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법률상 최고한도액이다.
- ③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진다.
- ④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⑤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의 가액은 사고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송남대학교



승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